

碩士學位論文

예수의 教育的 리더십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梁 鎭 健



110681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高 孝 淑

2001年 8月

예수의 教育的 리더십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梁 鎭 健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1年 4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세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提出者 高 孝 淑

高孝淑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1年 7月 日

審査委員長_____ 印

審査委員_____ 印

審査委員_____ 印

<碩士學位 論文 國文抄錄>

예수의 教育的 리더십에 관한 研究*

高 孝 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指導教授 梁 鎮 健

교육적 현상들은 우리들의 삶과 역사의 모든 면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정의를 주로 학교 교육에 한정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적 현상들을 밝히는데 소홀한 점이 없지 않다. 철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이질적인 과목들을 통해서 교육이 설명될 수 있다는 잘못된 가정 하에 많은 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수의 삶에서 교육적인 개념들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교육적인 면들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어느 누구보다도 교육적 비유로서 매우 큰 교육적 시사를 주고 있는 예수의 삶에 일관되고 있는 그의 독특한 교육적 리더십을 중점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연구로서, 이를 위해

- 1) 예수의 생애와 기록을 통하여 예수에 대한 교육학적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 2) 예수의 사제관계의 특성을 인간관계론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특징들을 발견하고
- 3) 예수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살펴본 후
- 4) 예수의 교육적 리더십을 현대교육학의 리더십 이론 중에서 변혁적 리더십 이론과 접목시켜 고찰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예수야말로 참다운 리더로서 자기 교육의 바탕이 되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다. 현대 교육에서 예수는 리더로서 요구되는 자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리더의 인격적인

* 본 논문은 2001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부분과 부하에 대한 사랑의 정도, 교수(教授)에 대한 능력 등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예수의 리더로서의 특징은 그의 삶의 모습에 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그 모델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기 전부터 삶을 통해 이미 실천하고 있었음을 신약성서 4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의 작업에서 몇 가지 통찰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예수의 삶에 반영되어 있는 교육 사태는 학교 연구에 편중되어 있는 현 교육학의 풍토에서는 낯설게 느껴지는 교육의 탈제도적(脫制度的) 측면을 잘 부각시키고 있다.

둘째, 예수의 삶은 교육 소재의 성격과 그 다양성에 대한 시사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예수의 삶의 교육적 해석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으로 변혁적 리더십의 발견을 들 수 있다.

넷째, 예수는 자신의 세계에 대한 보존의 방법으로 교육을 채택하였다고 하는 점은 교육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상의 결론에서 보듯이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서 교육적으로 유관한 사태들이 풍부함을 알 수 있었고, 예수의 교육적 리더십은 총체적 위기로까지 일컬어지는 오늘의 학교교육 현실을 타개하고 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공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다시피, 예수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스승들 중의 한 사람이다. 교육적인 면을 통해서 예수의 가치로운 세계를 조명하여 보면, 자신의 교육 행위에 대해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본질적인 가치를 전파하는데 전념하였다.

目 次

I. 問題 提起	1
1. 研究의 目的	1
2. 研究 方法	3
II. 論議의 背景	8
1. 예수의 生涯와 記錄	8
2. 예수에 대한 教育學的 研究 動向	15
III. 예수의 教育的 리더십	19
1. 예수의 師弟關係의 特性	19
1) 師弟關係의 이론	19
2) 예수의 師弟關係 特徵	21
3) 師弟關係의 成立	28
4) 師弟關係의 進行	31
5) 師弟關係의 解消	34
6) 師弟關係의 瓦解	35
2. 예수의 教育活動	40
1) 教育目標	40
2) 教育內容	42
3) 다양한 教育方法	47
4) 教育의 效果	59
3. 예수의 리더십	60
1) 變革的 리더십	60
2) 變革的 리더로서의 예수	63
IV. 結論	75
참 고 문 헌	83
Abstract	86

표 목 차

<표1> 예수의 비유들	52
<표2> 예수가 사용한 대상물활용교육의 예	5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 問題 提起

1. 研究의 目的

B. C. 5세기로부터 A. D. 1세기에 이어지는 시대에 인류의 스승으로 불리는 4대 성현(四大 聖賢)인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예수가 출현하였다. 이들은 장구한 세월을 거쳐 현대 사회에까지 심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인류의 스승과 성현이라는 호칭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들의 위대성이 인정되고, 또 이들이 인류의 스승으로 간주되고 있다면 적어도 교육이론은 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교육학의 이론들은 이들의 삶을 이해하는데에 유용한 안목을 제공해 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에서 교육학의 적용 범위를 탐색하는 한 시도로서 이들의 삶을 택하여 교육 이론의 조망을 가하는 것은 타당성 있는 연구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4대 성현 중의 한 사람인 예수를 선택하여 그의 기록에 나타난 교육적 측면들 가운데 특히 리더십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학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하여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예수에 대한 이해에 교육학적 관점이 고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교육학적 관점이라 함은 예수가 교육에 대해 가졌던 체계화된 나름대로의 견해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탐구를 통하여 예수의 교육

의 기능적 또는 협동적 본질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교육현실과 이러한 예수의 교육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예수의 교육적 리더십을 중점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리더십이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구성원들의 저항을 자아냄이 없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조하게 하는 일종의 기술 및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리더십은 모든 조직이나 집단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체이며 교육현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를테면 학교장의 리더십이 뛰어난 경우 교사들의 사기나 충성심은 높아지고 상호협력이 강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갈등, 대립, 불만이 커서 학교조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인간사회를 대표하여 학교에서 교육의 임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의 소명은 숭고하고 중대하다. 그들의 소명은 정신과 마음의 특별한 천분, 매우 성실한 준비, 개선과 적응의 민첩성을 요구한다.¹⁾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현장에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교육활동이 전개된다면 교육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의 리더십은 교육적 리더십의 한 전형을 이룬다. 물론 예수의 삶 자체는 매우 그 구조상 교육과 유관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교육학이 포섭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며, 형이상학적인 가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교육학적 유추를 위한 좋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그의 교육적 리더십이 대표적이 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교육적 비유로서 매우 큰 교육적 시사를 주고 있는 예수의 삶에 일관되고 있는 그의 독특한 교육적 리더십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교육학적 해석을 더함으로써 예수의 삶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확대된다면 이는 예수에 대한 사상사적 이해에 국한되던 예수의 교육활동에

1)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문헌(1995), 「그리스도교 교육에 관한 선언 제 5항」,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p.592.

대한 이해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잠정적 확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2. 研究 方法

본 연구는 예수의 삶에 관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록인 공동번역 신약성서를 텍스트로 채택하여 이를 교육학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학문의 한 방법론으로서 해석적 방법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해석의 과정에 개재되는 여러 가지 인식론적 문제를 다루어 온 분야가 해석학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로 해석학적 방법론에 의존하여 진행하게 된다.

해석학은 어떤 사람에 의해 생성된 텍스트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문제를 방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 때 텍스트란 한 인간이 자신의 내적 체험을 표현한 외적 표현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러한 텍스트에는 언어, 문장, 몸짓, 예술품, 행적 등 인간의 체험을 반영한 다양한 표현체들이 망라된다. 텍스트는 그로부터 무엇인가 들으려고 하는 독자들에게 의미를 전달한다. 해석이란 독자가 표현체들을 통하여 그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을 포착하고 발견하려고 하는 작업이다.²⁾

초기의 해석학자들은 텍스트란 창작자의 주관적 체험의 객관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를 구현시킨 창작자의 주관적 체험을 재생하는 것을 바른 해석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해석이란 독자가 작자의 체험을 자신의 내면에서 재생하여 재점유하거나 재체험하는 작업으로 이해하였다.³⁾ 이들은 텍스트의

2) E. Betti(1962/1980), Die Hermeneutik als allgemeine Methode der Geisteswissenschaften. Hermeneutics as the General Methodology of the Geisteswissenschaften. In J. Bleicher, Trans., & Ed. *Contemporary Hermeneutic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pp 51-94.

3) W. Dilthey(1927/1976), Gesammelte Schriften. In H. P. Rickman, Ed., Trans., & Intro.

의미는 그것을 창조한 사람의 것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해석의 타당성을 작자의 의도와 의 함일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작자의 의도라는 것이 단순히 작자의 사적(私的)인 것으로만 간주해서는 안된다. 해석의 과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독자의 내면에 작자의 내면 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이 있음을 전제한다. 독자와 작자는 같은 문화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산 체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적 작업은 이에 근거하여 가능하게 된다. 즉 인간의 삶은 항상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텍스트의 생성도 이 구조연관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텍스트에 대한 해석도 생의 구조연관 속에서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해석의 작업은 작품의 내부적인 부분들간의 관계성에 대한 고려와 그 작품의 출현 배경이 되는 광범위한 시대적, 사회적 정신과의 관계성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들에서는 저자의 주관과 해석자의 주관의 실질적인 함의에 도달하는 것을 해석의 과정이라고 보아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해석학적 입장들에 근본적인 난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해석적 과정의 새로운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새로운 입장에서는 해석학을 객관성을 추구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새로운 경험에 접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⁴⁾ 이들은 텍스트가 고정된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초기 해석학자들의 가정을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텍스트의 의미란 역사적인 산물로서 고정되지도 확정되지도 않은 채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하고 있다.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할 때 이미 해석자는 자신의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해석에는 해석자의 선이해(先理解)가 투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일한 텍스트라고 할지라도 해석자가 가진

W. Dilthey: *Selected Writ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89-105

4) M. Heidegger, 전양범 역(1989), 「존재와 시간」, 시간과 공간, pp.23-45.

H. Gadamer(1960/1982), *Wahrheit und Methode*. (J. C. B. Mohr, Trans. *Truth and Method*. New York: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p.34.

선이해의 차이로 말미암아 상이한 해석에 도달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선이해는 해석에 있어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해석자가 해석에 가지고 임하는 선이해는 일종의 주관적 인식이지만 그것은 자의적인 산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전통이며 이것을 통해서만 해석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석은 역사적 전통에 의해 생성된 역사의식이라는 선이해를 통해 진행되며, 그 의미는 역사적으로 변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들은 해석에 대한 이해를 작자의 의도라는 객관성에 집착하는 폐쇄적인 입장에서부터 텍스트는 개방되어 있어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다원화된 입장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었다.

작자의 손을 떠나 독자의 수중에 들어간 텍스트는 나름의 자율성을 갖는다. 이는 더 이상 저자의 의도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들의 체험구조의 수만큼이나 광범위한 세계와 관련을 맺는다. 같은 대상도 각기 다른 의미연관성의 지평에서 보면 아주 다른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해석은 텍스트를 어떤 맥락에 위치시키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고희의 미술품은 미술상, 미술가, 미술사가 등에 의해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때 각자가 해석에 동원하는 체험구조는 서로 상이하다. 예수의 이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 상이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선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 해석의 타당성과 진리성은 어디서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종전의 해석학이 집착하였던 저자의 의도와 분리된 진리의 이해가 제안되고 있다.⁵⁾ 하나의 이해가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에 상관없이 현(現) 존재를 은폐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드러나게 하거나, 가려져 있는 상태로부터 점점 밝혀

5) M. Heidegger, 전양범 역(1989), 앞의 책, pp83-88.

나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에 점점 다가가는 것이 될 수 있다. 즉 저자의 이해 수준에 일치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치한 곳에서 좀 더 넓고 높은 인식의 지평으로 나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진리의 체험에 더욱 부합한다는 것이다. 해석자의 지평이 텍스트의 지평과 통합되어 새로운 이해나 의견의 일치를 가져오는 지평의 융합(fusion of horizons)을 통하여 더 넓은 세계 이해로의 전진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지평의 확장 경험을 해석의 타당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⁶⁾

예수의 삶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이러한 해석의 다양성은 열려 있으며, 그 해석의 타당성도 얼마나 은폐된 것을 드러내거나 가려져 있는 것을 밝혀 내었는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수의 삶에 대한 기록은 이를 기록한 제자들의 체험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기록이다. 제자들의 예수에 대한 평가와 증언에는 자신들의 체험구조 수준을 반영하고 있어서 그것이 예수의 체험구조를 정확히 드러내어 주는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성서의 저자가 예수를 체험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유일하게 타당한 예수에 관한 해석이라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예수에 대한 기록의 해석을 통해 그 저자들보다 나은 예수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면 이는 성서 이해의 또 하나의 타당한 지평을 추가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저자의 의도와 관련짓지 않고도 그 자체가 얼마나 새로운 세계연관을 밝혀 내었는가에 의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예수의 언행들은 다양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록에 남겨진 예수의 단편들을 교육의 세계에 대한 의미구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교육학의 맥락에서 해석하려고 한다. 교육학의 맥락에서의 예수의 삶에 대한 이해란 제자들의 관점을 통하여 남겨진 예수의 삶에 대한 기록에 잠재되어 있는 예수의 교육적 체험을 본 연구자의 리더

6) H. Gadamer(1960/1982), *op. cit.*, pp.94-151.

십이라는 이론적 체험구조를 통해 포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예수라는 한 인간의 삶에 내포된 교육적 측면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예수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 교육의 세계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면 본 해석은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예수의 삶이 교육학적으로 어떤 시사
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고유한 분과 학문으로 교육학이 예수의 이해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게 될 것이다.



II. 論議의 背景

1. 예수의 生涯와 記錄

예수의 일생에 관하여 알려진 내용은 매우 적은 분량의 기록뿐이다. 최근에 당대의 사회적 상황의 연구와 조사, 추론에 의해 예수의 일대기를 재구성하고 있는 작품들은 여럿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잠정적으로 창작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역사적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예수의 생애에 대한 추론은 4복음서를 통한 역사적 재구성을 통하여 추론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예수의 탄생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신약성서의 마태오복음과 루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이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성서학자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는 기원전 4-5년경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점에는 거의 이견이 없다.⁷⁾ 그는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인 갈릴레아의 나자렛에서 자라났다. 성서에는 그의 탄생 이후 공생활(公生活)⁸⁾로 전환되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열 두 살 때의 예루살렘 학자들과의 토론 이외에 별 다른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여러 역사적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읽기와 쓰기, 그리고 당시 토라(Torah)를 위시한 히브리 경전의 암송과 같은 당대에 관습화되어 있던 교육

7) J. Drane, 이중수 역(1984). 「예수와 4복음서」, 두란노서원, pp.34-36.

8) 최형락(1982), 「천주교용어집」 성신출판사, p.53.

공생활이란 예수가 가정생활(사생활 : 私生活)을 떠나 공적으로 복음선포를 시작한 이후의 생활로, 대개 30세 가량부터 십자가에서 세상을 마칠 때까지 3년 간을 말한다. 이는 루가복음(3:1; 3:23), 요셉의 유다 전쟁(1:21)에 근거한다.

을 받았으리라 추정된다.⁹⁾

예수는 삼십 세 즈음에 비슷한 나이의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공생활이라 불리는 가르침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예수는 약 3년간의 공생활 동안에 열 두 명의 제자를 키워 내었고, 그가 세상을 떠난 직후에는 여자를 포함하여 약 120명 정도의 추종자들이 있었다. 예수의 공생활은 전도와 가르침, 기적들로 요약될 수 있다. Willmington¹⁰⁾은 4복음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예수의 행적의 72가지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예수는 주로 자신이 자라난 갈릴레아 지역의 가파르나움과 갈릴레아 호수 주변을 여행하며 가르쳤지만 매년 일 회 이상은 유대의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여행했으며 그 로중(路中)에서 병든 자들을 고쳐 주고 많은 가르침을 베풀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Jaspers¹¹⁾는 예수의 메시지를 천국이 가까웠으니 준비함으로 신앙을 통해 구원을 얻으라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다.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에는 종말을 염두에 둔 천국이 있으며 이 천국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존재 양식 자체의 변화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천국의 이념은 신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두 가지 계명에 의해 구체화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시 그 존재 양식에 관계없이 율법만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율법주의자들과 극단적인 대립을 이룬다. 예수는 존재 양식의 변화를 촉구하였고 이 변화가 새로운 세계에 부합한 인간상임을 강조하였다.

예수의 이러한 가르침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지지를 받았으며 그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두가이인 계층과 종교적 경건주의자들인 바리사이인들, 그

9) E. Renan, 박무호 역(1986), 「예수전」, 흥성사, p.73.

10) L. Willmington(1981), *Willmington's Guide to the Bible*. Illinois: Tyndale House Publishers, pp.72-78.

11) K. Jaspers, 황필호 역(1980), 「소크라테스, 불타, 공자, 예수, 모하메드」, 종로서적, p.83.

리고 지식인들인 율법사들과 정면으로 반대되자 이들에 의해 법정에서 고발된다. 당시 예수를 고소한 이들의 끈질긴 설득으로 예수는 유대의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 재판 받아 십자가 사형에 처해진다. 예수는 유월절(逾越節)이라는 유대의 축일을 앞두고 예루살렘의 외곽에 있는 골고타라는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는다.

성서는 예수가 죽은 지 사흘만에 부활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은 성서의 성격에 대한 입장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보수적 기독교계와 복음주의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기록이 역사적 증언으로서 신빙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¹²⁾ Bultmann¹³⁾과 같은 자유주의 계열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서 볼 수는 없고, 예수의 영향력과 비전의 부활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건 아니면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폭발적 증가는 그의 사후에 이루어진 일이다. 예수가 세상을 떠난 이후 120명 가량의 추종자들에 의해 시작된 기독교는 짧은 시간 안에 예루살렘에서 수 만 명에 이르는 추종자를 만들어 내었다. 이들의 성장에 큰 위기를 느낀 유대교 지도자들은 기독교도들을 정치적, 종교적으로 핍박하게 되고, 이러한 박해를 피하여 예수의 추종자들은 로마 식민지 도처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기독교가 확산되는 계기가 된다. 이와 함께 유대교로부터 극적으로 개종한 바울은 A. D. 30-60년 사이에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에서 열정적인 선교를 통해 도처에 기독교도들을 탄생시켰다. 예수의 가르침은 이러한 역사적 확산의 과정을 거쳐 지금은 세계의 가장 큰 종

12) P. Marston, & R. Forster, (1973), *God's Strategy in Human History*. Minneapolis: Bethany House Publishers, p.82.

13) R. Bultmann, 전경연 편역(1976), "최초의 교회의 '케리그마'와 역사적 예수." 「현대 역사적 예수 논구」, 한신대학 출판부, pp.31-57.

교 중의 하나인 기독교를 형성시켰으며,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어떤 사람의 것보다도 비길 수 없는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⁴⁾

예수의 생애를 추적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은 거의 없다. 물론 후대에 예수의 생애에 대한 엄청난 양의 주석(註釋)과 해제(解題)가 추가되고 있지만 정작 그의 삶을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일차 기록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특히 예수 자신이 아무런 저작도 남기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최초의 기록도 그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예수에 대한 기록은 거의 신약성서에 나타난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신약성서는 27권의 독립된 필자들에 의해 집필된 문헌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약 A. D. 50-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원본의 보존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본의 면밀한 내용 분석을 통하여 오늘날의 모습으로 확립된 것들이다. 신약성서는 AD 397년 카르타고 3차 공회에서 현재 27권의 정경(正經)을¹⁵⁾ 확정하였다.¹⁶⁾ 신약성서의 사본은 대략 그리스어 사본이 5,000여권, 라틴어 사본이 8,000여권, 그 밖의 언어로 된 사본이 약 1,000권 정도 된다.¹⁷⁾ 이 사본 중에 정확한 표준 본문은 없지만 과학적 가설을 가지고 분석을 통해 그 출현의 계통을 추적하여 원전의 모습을 추론하고 있다. 따라서 대체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원전을 반영하고 있다는 심증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원전의 모습은 추정에 그치고 있다.

신약성서는 예수의 제자와 사도들의¹⁸⁾ 제자들에 의해 남겨진 예수의 삶

14) H. Home, 박영호 역(1980), 「예수님의 교육방법론」, 기독교 문서선교회, pp.32-33.

15) 정경(canon)이란 공인된 성서를 의미하는데 이 때 성서란 단순히 하나의 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의 계시라고 하는 특별한 지위와 권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성서가 완성된 채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근거에 의해 그러한 특별한 권위가 주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와 입장들이 있다.

16) L. Willmington(1981), *Willmington's Guide to the Bible*. Illinois: Tyndale House Publishers, pp.330-335.

17) S. Kistemaker, 신성종·최갑중 역(1985), 「현대의 복음서 연구」, 엠마오, p.25.

에 대한 기록인 복음서들과 1세기 당시 새로 생긴 여러 교회들에 보내어졌던 서신들, 그리고 요한의 계시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약성서의 최대 저자는 바울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은 유대의 모든 전통과 구약성서에 정통한 학자로서 예수의 가르침을 유대의 전통에 비추어 가장 잘 이해한 사람으로 평가 받고 있고 기독교에서는 이의 해석이 곧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정통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외의 서신들은 예수의 제자 요한이 쓴 편지와 계시록, 유다, 야고보 등의 기록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예수가 사용한 아람어가¹⁹⁾ 아니라 당대에 세계어로 통용되던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다.

신약성서 중 예수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을 담고 있는 4복음서는 예수의 제자이자 세리로서 당시 유대 전통에 익숙해 있던 마태오가 쓴 마태오복음과 베드로의 충실한 비서였던 마르코가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기술한 마르코복음, 그리고 의사로서 자세한 관찰력과 객관적 역사 기록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루가가 기술한 루가복음, 그리고 예수와 가장 친밀했던 제자 중의 한 사람인 요한에 의해 기술된 요한복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스어 euangelion²⁰⁾의 번역인 복음(福音)은 희소식, 기쁜 소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마르코복음의 서두에서 찾아볼 수 있다.²¹⁾ 이 복음서들은 예수의 삶에 대한 전체적 기록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필자들의 관심과 의도가 반영된 선별된 기록으로 보아야 한다.²²⁾ 정경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도마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는 많은 내용에 있어서 4복음서와 일치하지만 일부 영지주

18) 사도란 보냄을 받은 사람, 메신저, 선교사란 의미를 지닌 보통명사이지만 성서에서는 특별히 예수의 직접적인 예수의 열두 제자와 바울에 국한하여 사용된다.

19) 아람語(Aramic)는 예수의 생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통용 언어로서 유대어나 그리스어와는 다르다. 예수는 유대어로 기록된 문헌을 읽을 수 있었지만 일상 생활에서 그리스어나 유대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추정된다. 4복음서의 곳곳에는 아람 방언이 직접 인용된 사례가 발견된다.

20) 로이B. 주크, 송원준 역(2000),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 디모데, p.140.

21)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르코”, 1:1, 대한성서공회.

22) J. Drane, 이중수 역(1984), 「예수와 4복음서」, 두란노서원, pp.42-48.

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정경의 대열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이 복음서들은 거의 유일한 예수에 대한 기록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복음서만이 그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이해를 얻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³⁾ 그러나 4복음서도 역사적 기록을 위하여 쓰여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각 저자의 고유한 기술 의도와 독자층을 의식하고 있는 문학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복음서들을 얼마나 믿을 수 있으며 그 복음서들의 내용 중 어떤 것이 진짜 예수의 말과 행동인가 하는 것을 가려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많은 논쟁이 개재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이를 망라하기는 어렵다. 대체로 4 복음서는 예수의 입장이 아닌 제자들의 관점과 그들의 문체, 지식수준, 계층적 편향, 문화 관습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저술 의도 등을 반영하고 있는 문헌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학자들의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

마태오복음은 예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마태오가 기록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마르코복음을 참조하여 저술되었을 가능성과 함께 이설도 제기되고 있다. 마태오복음의 큰 특징은 유대적 풍습과 관점을 전제하고 있으며 많은 구약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의 출현으로서 예수를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예수는 다윗의 아들로써 위대한 교사이자 왕이었던 솔로몬에 비유되는 유대의 왕과 교사(teacher)로 그려지고 있다.

마르코복음은 예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아 마르코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르코복음에는 예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없이 바로 공생활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마르코복음에서는 대체로 밥먹을 틈도 없이 사역에 전념하는 일꾼, 종으로서 예수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23) S. Kistemaker, 신성종·최갑중 역(1985), 「현대의 복음서 연구」, 엠마오, pp.45-49.

루가복음은 예수의 제자들로부터 전도를 받아 제자가 된 그리스계 의사 루가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루가는 이 복음서와 함께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는데 이 둘은 연작(連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루가는 의사 기질을 바탕으로 그리스계의 독자를 염두에 둔 사실적 기술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루가복음은 예수를 한 인간으로서 탄생에서부터 고뇌, 그리고 그에게서 발견되는 인간미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있다. 이상의 세 복음서는 상호 비교 가능한 많은 기술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생에 있어서 상호 의존 가능성이 가정되고 있으며 이를 공관복음서(共觀福音書)라²⁴⁾ 부른다.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서는 예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요한의 저술로 평가받는다. 그 문체의 독특성과 영적인 해석 때문에 공관복음서와는 다르게 신비주의적으로 이해되어 왔다. 요한복음은 자신이 집필 의도를 밝히고 있듯이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로써 신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곳의 기록은 공관복음서에서 발견되지 않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예수의 삶을 다른 각도에서 추적할 수 있는 단서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로 4복음서의 내용을 예수의 삶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기록으로 간주하고 그 사이에 내적 모순이나 긴장에 대하여는 크게 문제삼지 않고자 한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지는 본 연구의 맥락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4복음서의 기록을 하나의 완성된 문학이라는 관점에서 그 기록을 모두 수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례의 취사는 역사적 관점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24) 공관복음서란 같은 관점을 가진 복음서란 뜻으로서 마태오, 마르코, 루가 복음을 가리킨다. 이 세 복음서는 그 내용과 관점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으며 학자에 따라서는 그 출현에서 있어서 계열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2. 예수에 대한 教育學的 研究 動向

예수에 대한 연구는 신학에 의해 거의 독점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타학문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교육학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교육사(教育史)에서도 예수에 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예수 이전의 소크라테스나 그리스, 로마 전통의 교육은 교육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예수의 가르침이나 예수의 교육은 제도적 맥락이 없다는 점에서 대체로 간과되어 왔다.

(1) 교육적 관점

예수를 교육사에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교육의 구체적인 맥락이 부재한 가운데 위대한 성현(聖賢)의 한 사람으로서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예수가 인류에 기여한 모든 것이 교육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인데 이 경우 무엇이 구체적인 교육에 유관한 것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한기언의 기초주의에서도 교육의 본질은 기초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예수의 사랑 등을 포함시켜서 예수의 위대한 이념이 곧 교육의 이념이라는 도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가르침과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육과 관련되는지를 포착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²⁵⁾

(2) 교육방법의 적용관점

예수로부터 교육 방법을 얻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다. 예수의 교육 방법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학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는 예수가 비유(比喩)를 사용했다는 점이나, 그가 사랑으로 사람을 대했다고 하는 막연하고 일반

25) R. Ullrich, 한기언 역(1958), 「교육사상사」, 한국번역도서주식회사, p.24.

적인 설명에서 교육에 대한 시사를 찾고 있다.²⁶⁾

단순히 학교 교육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예수의 교육적 방법 즉 그의 교육적 형식에 관심을 보여 온 연구들도 있다. Horne은 예수의 가르침의 내용이 아니라 가르침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 형식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예수의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대인관계의 기술들과 교사로서의 자질을 정리하여 현장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이끌어 내고 있다.

(3) 기독교 교육학적 관점

예수의 해석에 대한 또 다른 연구의 집단으로 기독교 교육학의 부류가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 입장에 따라 상이한 이론들이 개재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개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Scott는 기독교 교육의 연구들을 교회적 문화화 전통을 중시하는 연구 유형과 수정주의적 전통, 재개념학파의 연구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²⁷⁾

① 교회적 문화화 전통을 중시하는 연구 유형

예수의 삶과 가르침의 내용을 기독교의 교리로서 학습자들에게 전수시켜야 할 교과로 파악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교과는 예수의 삶으로 대변되는 기독교 교리이며 기독교 교육의 방법은 교육학에서 차용하여 응용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학을 교육학적 연구업적에 기대어 교회 교육에 적용하려고 하는 입장을 띤다. 예를 들어 교육학에서 사회학의 관점을 빌어 적용한 문화의 개념을 다시 교회 교육의 맥락에 적용시키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예수가 문화의

26) 송덕준(1976), 「예수의 교육방법」,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동일(1976), 「예수의 비유에 나타난 교훈」,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우현(1977), 「교사론」, 배영사, p.70.

27) 강희안(1991), 「기독교 교육사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pp.34-38.

내용을 제공하는 자로 이해되고 있을 뿐, 교육 행위의 주체로서 예수의 말과 행동은 잘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② 수정주의적 전통이나 재개념학파의 연구

기독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경험과학적 지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기독교 전통의 성격 자체가 단순히 전수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서는 안되고 현재의 경험과 상황에 의해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예수의 삶을 단순히 종교적 창시자라는 입장보다는 현실의 모순을 타파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인물로 묘사한다. 수정주의의 전통에서는 예수를 해방자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예수는 교회 내부의 문제보다는 교회 바깥의 부정의, 불평등, 부자유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했으며 이와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자로서 예수를 위치시켰다. 이러한 입장에서 기독교 교육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비판적 의식의 고취와 정치적 의식화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과는 다르게 기독교 내부에서 공동체 생활과 제자 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시 예수의 삶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부류의 논의들은 기독교인이 단순히 교회출석자(church-goer)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제자로 성장해야 한다는 관심을 반영한 저작들인데 여기에서 예수의 교육적 삶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이 시도되고 있다. Watson은 예수의 삶을 제자도(discipleship)라는 관점에서 재정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본 연구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전도와 함께 교회 교육의 일환으로 기존의 제도적 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느껴 예수의 교육 방법인 제자 훈련에 눈을 돌리는 저작들도 나타나고 있다.²⁸⁾

그러나 이 모든 연구에 있어서 예수가 교육학적으로 의의가 있으리라고 하는 심정적 추론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엇이 그 구체적인 모습이 될 수 있

28) P. Chandapilla, 한국기독교학생회 역(1985), 「예수님의 제자훈련」,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pp.82-83.

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들은 교육을 이해하는 고유한 관점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삶에서 무엇을 교육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지, 그것이 교육을 이해하는데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는 밝혀 주지 못하고 있다.



Ⅲ. 예수의 教育的 리더십

1. 예수의 師弟關係의 特性

1) 師弟關係의 이론

사제관계는 교육행정학의 주요관심영역 가운데 하나인 인간관계론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인간관계접근이 교육행정에 크게 영향을 미쳐 1940년대 초에는 호손 실험의 결과를 교육행정가에게 관련시키거나 교육경영에 연관시키려는 시도가 있었고, 1940년대 후반부터는 교육행정에 있어서의 인간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인간관계론이 학교조직에 영향을 미치면서 교육행정가 내지 교육경영에 관련된 개념이 많이 변화하였다.

첫째. 교육행정가는 직원의 화합과 사기진작자로 간주되었다. 학교장의 책임은 조직 구성원들이 상호간에 만족감을 가지면서 관계를 유지하도록 조장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교사들의 화합과 높은 사기는 교수·학습을 개선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또 화합과 사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대되는 바이기도 하다. 교육행정가는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교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교사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사기를 높여줄 수 있다고 믿고 사기 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요령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교장은 교사를 존중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요청이 있을 때 즉시 응해 주고, 잘한 일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귀를 기울여 주고, 격려해 주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학교장은 교사의 경제적·사회적인면, 비판, 칭찬, 교사의 성격과 문제, 성장 가능성의 개발 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언되기도 하였다.

둘째, 교육행정은 봉사직으로 개념화되었다. 교육행정이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수·학습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봉사활동이라고 보는 「교육을 위한 행정」의 개념규정도 인간관계론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교육활동은 학교에서 으뜸인 주인인 셈이요 행정은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하인에 불과하며, 하인은 오로지 주인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주객이 전도되어 행정이 주인이 되고 교육이 하인이 되어 교육이 행정의 시녀노릇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교육행정에서 봉사활동은 주로 인사, 재정, 시설, 교과과정 등의 여러 면에서 수행되어야 하되 오로지 학교에서의 교수·학습활동이 잘 달성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주어져야 한다.

세째, 의사결정에서 폭넓은 참여를 중요시하였다. 학교행정에서 참여를 중요시한 것은 ① 모든 개인에게 적극적으로 학교 일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개인의 성장을 도울 수 있으며, ② 참여를 통하여 개인의 관심, 필요, 능력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격려할 수 있으며, ③ 구성원이 함께 계획하고, 경험을 함께 나누고, 협동적으로 그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수단을 마련할 수 있으며, ④ 의사결정의 책임을 한 개인이나 몇몇 사람에게 보다 집단에 둘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념의 바탕 위에서 1930년대에 들면서 폭넓게 지지를 받은 것은 협동적 의사결정이었으며, 그 형태로는 예컨대, 공개토론(open discussion), 실무위원회(task forces)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행정적 권위는 집단으로부터 부여된 민주적 권위를 가치롭게 생각하게 되었다. 민주적 권위는 집단의 권위이며, 이는 국민에 의하여 부여받았을 때만 의미가 있다. 민주적 권위는 힘이나 권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집단의 위임에 달려 있다. 따라서 민주적 권위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공동선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하며, 또 자유토론에서 집단이 결정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다섯째, 행정가는 개인의 만족을 증진시켜 줄 여건 조성자로 간주되었다. 학교행

정가가 학교 구성원인 교사들의 경제적 및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이유는 교사들의 만족은 곧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장은 교사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공정한 대접을 받고, 성취감을 갖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주어진 일에 흥미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2) 예수의 師弟關係 特徵

인간관계론이 교육에 끼친 영향은 다섯 가지로 대별된다.

- ① 교육행정가는 직원의 화합과 사기진작자이다.
- ② 교육행정은 봉사직이다.
- ③ 의사결정에서 폭넓은 참여를 중요시하였다.
- ④ 행정적 권위는 집단으로부터 부여된 민주적 권위를 가치롭게 생각하게 되었다.
- ⑤ 행정가는 개인의 만족을 증진시켜 줄 여건 조성자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특징은 예수의 사제관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제자가 스승의 품위로의 상향적 변화를 전제한 상호간의 협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제자 측에서의 “가르침을 청하기”(請敎)나 스승 측에서의 “배움을 청하기”(請學)를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수락함으로 성립한다. 예수가 제자들과의 스승 제자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장면에서 인간관계론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1) 가르침을 청하기(請敎)

먼저 청교(請敎)의 사례를 살펴보면 예수의 首弟子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아의 예를 들 수 있다. 그는 원래 세례자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자요한이

예수를 높이 평가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기 위하여 찾아간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뒤돌아 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라빠, 묵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하고 말하였다. (라빠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시자 그들은 따라가서 예수께서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은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지냈다. 때는 네 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²⁹⁾

안드레아가 전 스승 세례요한의 추천에 의해 예수를 찾아가서 예수의 주변을 맴돌 때 예수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으로 그들이 자신을 찾아온 목적과 이유를 묻는다. 예수는 그를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찾아온 이들에게 어떤 의도와 어떤 관심으로 자신을 필요로 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한 안드레아의 대답은 바로 당신 자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의 거처를 알고 싶다고 말한다. 이는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으로서 예수가 가진 어떤 외형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에 대하여 관심이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점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청교하는 자가 구하는 것이 스승의 품위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고 하는 전제 위에 성립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이 구하는 것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나 권세를 누리는 것이었다면 예수는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바로 '스승과의 동행'을 원하는 스승의 주체 내에 있는 품격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의 확인과 수락에 의하여 그들과 예수는 스승과 제자라는 교육적 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이

29) 「공동번역 신약성서」, "요한", 1:37-40, 대한성서공회.

예수가 한 청년의 청교를 거절한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한 율법학자가 와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하고 말씀하셨다.³⁰⁾

예수는 이 사람의 청교에 대하여 들의 여우나 공중의 새보다도 처량한 자신의 처지를 제시하면서 이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스승과 제자 관계의 성립은 여타의 모든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고귀한 품위를 관심의 초점에 두고 ‘스승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에 의하여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2) 배움을 청하기(請學)

예수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제안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청학 하는데 그의 열 두 제자 중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필립보, 마태오의 사례는 신약성서의 복음서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³¹⁾

그러면 예수는 어떠한 동기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성립을 위한 청학에 나서게 되는가? 예수는 가르침의 생활을 시작할 즈음에 한 회당에서 행한 설교 중에 구약성서의 이사야서(Isaiah)에 기록된 문구를 인용함으로 자신이 가르침에 나서게 된 심중과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30)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태오”, 8:19-20, 대한성서공회.

31) 「공동번역 신약성서」, “요한”, 1:43-44, 대한성서공회.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³²⁾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을 향한 것인가를 이 인용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 예수가 가르침의 대상으로 선택했던 사람들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의 공간이 완전한 자, 자유로운 자, 눈뜬 자들에게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의 부자유함, 가난함, 억눌림, 보지 못함이라는 그들의 불완전성과 비천함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예수의 주된 상대가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소외된 비천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자 당시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랍비들은 예수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붙여 비난하였다. 그에 대하여 예수는 의원의 존립 근거를 통하여 그들의 비난을 반박한다.

어느 날 예수께서는 레위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많았는데 그 중 여럿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바리사이파의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한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저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같이 음식을 나누고 있으니 어찌된 노릇이오?”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대답하셨다.³³⁾

32) 「공동번역 신약성서」, “루가”, 4:18-19, 대한성서공회.

33)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르코”, 2:15-17, 대한성서공회.

스승의 존립 근거는 제자의 불완전함과 미련함에 있다. 스승이 제자의 이러한 미련함을 비난하고 부정하는 자세만 취한다면 그는 결코 스승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스승은 제자의 불완전함과 미숙함을 볼 때 이를 자신을 요청하는 소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스승은 후진이 자신과 비교해 볼 때 드러나는 불완전함에 연민을 느껴 제자를 찾아 청학하게 된다. 제자가 스승에게 청교 하는 경우에는 스승이 제자의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그 청을 수락할 수 있음에 반해 청학의 경우에는 좀더 복잡한 사태가 벌어진다. 청교의 경우에는 스승이 제자의 품위를 쉽게 알아볼 수 있어서 교육적 관계의 형성이 비교적 쉽지만 청학의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애로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제자가 자신의 품위에 대하여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아 배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제자가 배움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배움을 청하는 스승이 자신의 배움을 촉진할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청학하는 장면에서 배움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후진을 어떻게 스승-제자의 관계로 전환시키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자발적인 수락에 의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강제적인 관계의 성립이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예수가 위대한 품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베드로의 수락이 없이는 그를 자신의 제자로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예수는 제자의 자발적 요청과 수락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드러내어 그의 내적인 궁핍감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었다.

베드로는 예수가 초창기 가르침을 펴고 있을 때 그 주변에서 그물이나 씻고, 자기 생업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던 그에게 하루는 가르침을 마친 예수가 말을 걸어온다. 그날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여 고기를 잡

고자 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날이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상식 밖의 제안을 한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였지만 반신반의하면서 이를 행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는 이 사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겁을 집어먹었던 것이다. 그의 동료들과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놀랐는데 그들은 다 시몬의 동업자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배를 끌어다 호숫가에 대어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갔다.³⁴⁾

베드로는 위의 사태에서 똑 같은 옷을 입고, 똑 같은 음식을 먹는 그리고 나이도 비슷한 예수와 자신이 뚜렷이 구분되는 자기 한계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베드로는 이 사건 전에도 예수와 면식이 있었으며 동생 안드레아를 통해 예수를 소개받고 있었다. 그러나 처음에 그는 자신의 생활과 예수를 관련짓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못 닿을 곳에 예수라는 인물이 서있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예수를 달리 보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그 결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 경험은 베드로가 자신이 만족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새로운 인식으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 계기를 통하여 예수는 마침내 베드로에게 자신을 따라 오라고 하는 청학을 하게 되며 이를 수락 받는다. 이후 베드로는 예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배우는 삶을 살게 된다.

34) 「공동번역 신약성서」, “루가”, 5:8-11, 대한성서공회.

후진이 자신의 불완전성을 인식하여 배움의 의지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배움을 촉진할 파트너로서 스승을 가려내어 그에게 기대를 걸게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 성립에 개재되는 애로라고 할 수 있다. 예수의 제자 나타나엘의 사례는 그가 베드로와는 달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이미 배움에 나선 인물이라는 점에서 베드로와는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나타나엘은 친구 필립보가 예수의 제자가 되자고 제안했을 때 예수가 과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예수가 나타나엘에게 청학을 할 때 그의 불완전함을 인식시킬 필요는 없었지만 그와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식시킴으로써 자신이 스승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야 했다.

그가 나타나엘을 찾아가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나자렛 사람이오.”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나자렛에서 무슨 신성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하고 물었다. 그래서 필립보는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권하였다.

예수께서 나타나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하고 말씀하셨다.

나타나엘이 예수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하고 물었다. “필립보가 너를 찾아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³⁵⁾

나타나엘은 진지한 사람으로서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을 개탄하며 이스라엘의 회복과 신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들을 회구하는 구도의 마음이 있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와 구도의 길을 걷고 있었을 것이다. 예수는 그의 이러한 진지한 구도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으며 그에게 바로 자신이 필요

35) 「공동번역 신약성서」, “요한”, 1:45-49, 대한성서공회.

하다는 사실을 확신하였다. 나타나엘은 자신의 구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진지한 의사소통의 대상을 만나게 되었다는 데서 그의 마음에 있던 의구심이 사라진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그에게 새로운 차원의 것을 제시함으로써 그에게 자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었다.

3) 師弟關係의 成立

교육적 관계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 길을 떠나는 것이다. 그 길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하여 진행되는 목표 지향적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항상 완전한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안이한 여정이 아니다. 스승과 제자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관계를 성립시키는 단계에서 이제 스승은 자신의 목표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완전히 이해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지라도 제자의 품위의 변화를 통한 이 여행의 종점에 도달했을 때 이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시킬 수 있는 단서들을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즉 스승은 목표의 설정을 통해 제자에게 정향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것은 이들이 여행의 종말에 도달해서 확인해야 하는 秘標와 같은 것이다.

예수는 이러한 목표로서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더 큰 일을 보리라’와 같은 비표를 제시한다. 제자들은 예수가 이러한 제안을 할 때 자신의 경험의 연장에서 이것을 막연히 추측했을 뿐 그것이 의미하는 실체가 무엇인지는 결코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은 예수가 ‘너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³⁶⁾라든지 ‘~뒤에야 이 말씀을 생각하고 비로소 성서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³⁷⁾라는

36) 「공동번역 신약성서」, “요한”, 13:7, 대한성서공회.

37) 「공동번역 신약성서」, “요한”, 2:22, 대한성서공회.

표현에서 그 단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비로소 믿게 되는 것’을 스승은 미리 제자들에게 약속하여야 하며 이것은 여정의 종말에 이르러 제자들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를 통해 스승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스승과 제자의 교육적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스승은 자신과 제자간의 차이를 인식시키고 자신의 품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여 한다는 의무가 있다면 제자는 어떤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예수는 그가 청학하면서 이와 함께 그들이 따라야 할 조건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예수는 자신을 따르고자 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져 보고, 그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하였다. 비용 계산을 능히 감당할 수 없다면 교육적 관계는 중도에 중단될 것이며 이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 하였다. 그러면 예수는 어떤 대가의 지불을 제안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동행하던 군중을 향하여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올 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의 가운데 누가 망대를 지으려 한다면 그는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따져 과연 그만한 돈이 자기에게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기초를 놓고도 힘이 모자라 완성하지 못한다면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집짓기를 시작해 놓고 끝내지를 못하는구나!’하고 비웃을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이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적을 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당해낼 수 없다면 적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평을 청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³⁸⁾

38) 「공동번역 신약성서」, “루가”, 14:25-35, 대한성서공회.

소금을 소금 되게 하는 것은 그 짠 맛(saltiness)이라고 할 수 있다. 짜지 않은 소금은 이미 소금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제자를 규정하는 제자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제자가 이를 상실했을 때 더 이상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교육적 관계는 스승의 스승다움과 제자의 제자다움이라는 각 각의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유지될 수 있다. 그것은 생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헌신에 의해 유지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의 지속적 유지를 위하여서는 양자가 그 조건에 복종해야 한다.

예수는 자신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제자의 삶을 출발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알아야 할 조건들이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다. 예수는 제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배움을 최우선하는 헌신된 자세, 맡겨진 과제에 대한 성실한 수행, 여러 유혹의 거절을 제시하고 있다.

예수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제자로 부적합하다고 하였다.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표현은 유태인들의 어법에서는 혐오하거나 증오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덜 사랑한다', '우선 순위에 있어서 차선이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³⁹⁾ 예수와 스승-제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배움을 우선시하여 열중하고 헌신되어야 한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배움에 시간과 관심, 열정을 집중하는 헌신을 요구하였다.

또 다른 조건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성실히 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에게 부과된 십자가, 즉 자신의 과업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자는 자신의 모순과 이를 위해 제시되는 새로운 도약의 과제를 책임 있고 성실하게 정진함으로써만 배움의 종착점에 도달할 수 있다.

39) R. Forster(1990), *The Kingdom of Jesus*. London: Ichthus media service, pp.124-137.

마지막으로 물질적인 유혹에 대하여 경계할 것을 주문하였다. 예수는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극단적인 주문을 하고 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나설 때 그물이나 배 등 자신의 생업 도구들을 버렸다고 한다. 예수는 자신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 자신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배수(背水)의 진(陣)을 치기를 원하였다.

4) 師弟關係의 進行

이렇게 교육적 관계가 형성되면 이제 스승과 제자는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하여 부단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스승은 자신의 품위와 제자의 품위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과 긴장을 계속적으로 노출하고 충돌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제자의 품위 향상을 향도(嚮導)하게 된다. 예수의 삶에서 이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를 따르라'와 '나를 먹으라'라는 두 가지 요청을 살펴봄으로 엿볼 수 있다.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였다. 예수는 자신의 삶을 제자들이 따라야 할 전형으로 규정하고 그 모든 내용을 노출시켰다. 자신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며, 어떻게 기도하며, 돈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며,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와 같은 모든 삶의 구성 내용이 제자들에게 모범으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 부여된 일차적 소명도 예수의 충실한 증인이 되는 것이었다. 예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외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며, 따라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앞둔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그들의 발을 씻어 줌으로 이러한 모범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⁴⁰⁾

40) 「공동번역 신약성서」, “요한”, 13:4-15, 대한성서공회.

이처럼 시범과 모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스승은 제자들이 따라야 할 외형적 사태를 보여줄 수 있고 이를 모방하도록 할 수 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이 외형적 동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 ‘나를 먹으라’고 하는 요청은 스승의 품위에 대한 제자의 주체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예수는 제자들이 단순히 외면적 효과만을 위하여 스승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으라’는 내면적 변화를 통하여 스승과 평등한 수준의 품위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예수의 ‘나의 살을 먹으라’라는 요청은 두 곳의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한 곳은 예수가 죽기 전 날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주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이고 다른 한 곳은 오병이어(五餅二魚) 기적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는 곳에서이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시고 “받아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건네시자 그들은 잔을 돌려가며 마셨다.⁴¹⁾

그리스도교에서는 미사 때에 이 사건을 기념하여 성찬의 전례를 행한다. 우리는 흔히 지식을 자기화 하는 과정을 소화 과정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다. 신체와 별개로 존재하는 음식물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 먹어지면 일련의 소화 과정을 통하여 그 영양소들이 신체의 일부로 변하여 생명력을 얻게 된다. 이처럼 지식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습득되고 나면 주체의 사고와 행동의 한 요소로 인격화된다고 할 수 있다. 예수는 그의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가르침과 모범들을 이처럼 완전히 체계화하여 그 존재의 고양을 실현되기를 열망하였다.

41)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르코”, 14:22-23, 대한성서공회.

예수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이러한 열정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장상호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물질로서 음식물의 공여보다는 정신적인 산물인 품위의 공여로 해석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 손에 들린 작은 음식이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로 만족되게 나누었다는 내용이다. 물질의 세계는 제로섬(zero-sum)의 원칙에 지배를 받지만 수도계의 품위는 이러한 물리적 법칙을 초월한다. 이는 마치 손실 없이 위 탱크의 물이 아래 탱크를 채우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⁴²⁾ 이 기적을 베푼 후에 군중들은 다시 떡을 얻어먹기 위해 몰려들지만 예수는 이 기적을 베푼 의도가 바로 ‘자신의 살을 먹으라’라는 교육적 요청의 상징으로서 그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 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유대인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하며 서로 따졌다.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⁴³⁾

떡을 먹는 데는 동참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의 진정한 의도는 이해하지 못하였다. ‘나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없다. 예수는 자신의 살과 피를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먹도록 준 적이 없다. 그

42) 장상호(1991), “교육학 탐구영역의 재개념화.” 「교육학연구」, 91-2, 서울대사범대학 교육연구소.
43) 「공동번역 신약성서」, “요한”, 6:51-56, 대한성서공회.

가 이야기하는 차원은 군중들이 이해한 것과는 다른 맥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예수의 이 기괴한 요청은 오히려 교육적 맥락에 비추어 이해될 수 있다. 예수는 자신의 피와 살이 군중들의 피와 살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자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며 사람들은 땅으로부터 나온 떡이다. 이 둘 사이에는 엄연한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땅으로부터 나온 떡은 죽음이라는 결정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하늘로부터 나온 떡은 죽음을 극복하여 영생하는 떡이다. 죽음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는 땅에서 나온 살과 피는 결코 영원히 살 수 없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다른 종류의 살과 피를 먹어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살과 피로 변형, 즉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땅에서 나온 존재의 한계인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히 살 수 없다. 이를 선진의 품위와 후진의 품위에 적용할 때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후진의 품위와 선진의 품위 사이에는 하늘과 땅이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서 후진의 품위는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그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다. 후진의 품위는 선진의 품위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체화시킴으로써 후진의 품위가 가진 한계를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수가 자신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후진의 품위를 선진의 품위로 주체화를 통해 대체할 것을 촉구하는 교육적 요청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5) 師弟關係의 解消

예수는 나를 본받는 것과 나를 먹는 것을 통해 제자들의 품위가 상승적으로 변화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예수는 주종 관계와 친구 관계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 관계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주었다.⁴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상당 기간 주-종의 관계를 형성한다. 제자는 스승을 믿어야 하며 그에게 주인과 같은 권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는 교육적 차원에서 스승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스승이 시키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종이 주인의 의도를 다 알지 못하고 단편적인 수행에 그치는 것처럼 제자는 일정한 기간동안 스승이 지시하는 것의 참된 의미와 전체적 맥락은 유보한 채 단편적인 수행을 실행하여야 한다. 때로는 스승이 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어 보이기도 하고 무가치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처럼 스승-제자 관계는 주-종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 때 주-종의 관계는 교육적 상승이라는 목표에 유관한 주-종의 관계인 것이다.

그러나 스승-제자의 관계는 맹목적 주종 관계의 영속을 의미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적절한 시기에 친구 관계로의 전환될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예수는 제자들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면 이제 종에서 친구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명령을 수행할 때는 그들은 종이지만 그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의 품위의 전환이 일어나면 이제는 스승과 같아져서 스승과 불평등한 의사소통이 아닌 평등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친구 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초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종관계의 성공적 수행이 선결되어야 한다.

6) 師弟關係의 와해

44) 「공동번역 신약성서」, “요한”, 15:14-15, 대한성서공회.

이러한 교육적 관계가 항상 성공적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종의 관계에서 친구의 관계로 전환되는 과정에는 많은 암초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관계가 그 종점에 도달하여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중도에 와해되어 버릴 수 있다. 교육은 스승과 제자의 자발적 참여라는 전제 위에 성립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계약 파기는 중도 하차를 가져올 수 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 가운데 진행되는 협동교육은 마치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의 협응에 의해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교육이라는 구조 안에서 짝을 이루고 있다.⁴⁵⁾ 부부 관계의 와해가 남편의 문제 일수도 있고 아내의 문제 일수도 있듯이 교육적 관계의 와해도 그 원인을 각각의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의 성패는 스승의 성패와 제자의 성패의 조합에 의해 네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스승의 성공과 함께 제자의 성공은 가장 바람직한 협동교육의 양태라고 볼 수 있다. 스승의 실패와 제자의 실패는 최악의 경우라 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의 실패는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스승의 성공과 제자의 실패가 조합되는 경우나 스승의 실패와 제자의 성공이 조합되는 경우는 좀 더 복잡한 양태를 띤다.

전통적으로 제자의 활동은 스승의 활동에 종속되는 활동으로 간주되어 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스승의 결과에 의해 제자를 평가한다. 스승이 결과적으로 실패하면 제자는 실패한 것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스승이 성공하면 제자는 성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스승이 제자를 대신할 수 없듯이 제자의 실패는 스승의 성공과는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훌륭한 제자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실패를 결과할 수 있다.

이는 스승의 활동 자체가 제자의 활동에 의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 아닌

45) 장상호(1991), 앞의 책, 91-2.

주체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만일 제자가 스승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다면 이는 스승의 자발성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교육적 관계의 기본 원리를 저해한다. 따라서 스승의 실패는 결국 스승의 몫으로 돌려져야 하며 제자의 활동은 그 자체에 의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는 잘못된 스승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당시 그릇된 가르침을 일삼던 소위 율법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바리사이인이나 서기관들에 대하여 예수는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 등과 같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판한다.⁴⁶⁾ 이는 예수의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비해 매우 이례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예수가 당시의 율법 선생들을 비판한 내용에서 가르침의 실패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잘못된 스승들은 진리를 독점하고 이를 공유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을 띤다. 그들은 가르침에 종사하면서도 배우는 자들이 자신의 수준에 이르는 것을 경계한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품위의 우위를 독점하려 하며 이를 통하여 배우는 사람을 항상 지배하려 하는 속성을 가진다. 또 잘못된 스승은 진리를 우상화하고 그것을 칭송하고 예찬하는 데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진리에 다가서려고 하지 않는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이중성도 문제가 된다. 그들은 자신이 헌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말하고 가르친다.

예수는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⁴⁷⁾를 통하여서 배움이 실패하게 되는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과정에서 똑 같은 씨앗이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떨어지게 된다. 이 중 세 종류의 밭은 결실에 이르지 못하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만이 생명의 확산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배움에 나섰지만 그 결실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는 이를 밭으

46)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태오”, 23:1-39, 대한성서공회.

47)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태오”, 13:1-9, 대한성서공회.

로 비유되는 배우는 사람의 자세와 관련된 문제로 보고 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 바닥에 떨어져서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가 쪼아먹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나기는 하였지만 바닥에 습기가 없어 말라 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함께 자라서 숨이 막혀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나 백 배나 되는 열매를 맺었다.”하시고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하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예수께 묻자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알게 해 주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가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씨가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뿌리가 내리지 않아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고 시련의 때가 오면 곧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걱정과 재물과 현세의 쾌락에 놀려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꾸준히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⁴⁸⁾

첫 번째 실패 유형은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이 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스승의 가르침과 자신을 전혀 연결시키지 못한 경우이다. 이 사람은 자신이 너무 완고하여 스승의 가르침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스승의 가르침은 그에게 늘 길가를 굴러다니는 씨앗처럼 이리 저리 굴러다니다가 새에게 먹혀 버

48) 「공동번역 신약성서」, “루가”, 8:5-15, 대한성서공회.

리고는 사라진다. 스승의 가르침이 그에게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한 것이다. 그는 스승의 말을 많이 주워 들을 수 있지만 자신은 아무런 상관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그 마음이 돌밭과 같은 사람이다. 이는 바위틈에 피어난 식물처럼 얇은 흙을 의존하여 뿌리를 내리지만 싹만 틈을 뿐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예수는 이러한 유형을 들을 때 기뻐하고 수궁도 하지만 잠깐 견디다가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올 때에 포기하는 유형이라고 하였다. 즉 비용 계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어려울 지 몰랐다.'라든지 '이것까지 포기해야 할 줄 몰랐다', '이런 반대에 부딪힐지 몰랐다.' 등과 같이 그 중도에 제기되는 걸림돌들을 견뎌 내지 못하고 배움의 길에서 떠나는 유형이다.

세 번째 유형은 그 마음이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다. 그곳은 식물이 자랄 만한 토양이지만 성공적인 결실의 방해가 되는 다른 식물들이 함께 자라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거기에는 가시나무처럼 좋은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함께 자라고 있다. 예수는 이러한 가시나무들의 구체적인 예로서 '이생의 염려', '재리', '일락'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세상사에 대한 걱정, 재물의 이익, 순간적 쾌락과 같은 것들이 배움의 마지막에 도사리고 있는 암초들이다.

예수의 제자 중 가리옷 유다의 실패는 세 번째 유형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가리옷 유다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고 고백한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예수의 우월성, 그의 무결(無缺)함을 인정한 것이 분명하다. 그는 예수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가리옷 유다의 마지막 유언은 예수가 잘못이 없고, 또 사형 당해야 할 그러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러한 자리로 내몰았다고 하는 점에 대한 후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가 죄가 없다면 유다는 왜 그를 죄인의 자리에 팔았는가? 유다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재정을 맡

아 보관과 집행을 하였다고 한다. 그는 그 과정에서 때때로 그것을 흠치기도 하고, 또 자신의 뜻대로 유용하기도 하였다. 그는 배움의 과정에서 재리의 유혹이 가장 번창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그러한 유혹을 거부하지 못했다.

유다는 예수에게 배움으로써 예수가 자신보다 뛰어나며 자신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품위를 고집하고 그것을 선택한 것이다. 앞서 가치의 문제를 다룰 때 좋은 것에 대한 자발적 헌신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좋은 것에 대한 의도적 배신이 바로 가리옷 유다의 행동이었던 것이다. 진리가 이미 진리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재물이 주는 이익에 유혹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과학의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⁴⁹⁾



2. 예수의 教育活動

1) 教育目標

참된 교사는 반드시 전략과 전술을 모두 지녀야만 한다. 즉 참된 교사는 목표와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전략이 없다면 전술들이 목표를 갖지 못하며, 전술이 없이는 전략을 성취시킬 수단이 도무지 없다는 말이다.⁵⁰⁾

49) W. Broda, & N. Wade, 박익수 역(1994), 「과학사에 오점을 남긴 배신의 과학자들」, 겹지사, pp.35-39.

50) H. Horne, 박영호 역(1999), 「예수님의 교육방법론」, 기독교문서선교회, p.46.

교사 예수가 가졌던 교육 목표를 알아보고자 한다.

① 아버지의 뜻과 일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하고 말씀하셨다.⁵¹⁾

②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⁵²⁾,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⁵³⁾

③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얻어 그들을 자신의 증인으로서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많은 사람들을 불렀으며, 그들 가운데 몇을 사도로 택하였으며,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 파견하였으며, 그들에게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⁵⁴⁾하고 말하였다.

④ 형식적인 종교를 실질적인 종교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이것에는 세리의 기도, 가난한 과부의 헌금, 알림이 없는 조용한 가운데 하는 단식, 살인과 탐욕과 미움의 동기를 제거하는 일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가운데 희생의 제사제도의 파괴조차 포함된 엄청난 규모의 일이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⁵⁵⁾

⑤ 율법을 사회적 정의가 편만한 새로운 세계적인 나라(universal kingdom) 속에서 성취하는 것이다. “내가 율법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⁵⁶⁾ 예수가 말한 비유들 가운데 대부분이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 나라의 성격에 대하여 명백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말한 것이다.

⑥ 생명의 길을 모범으로 보여주고 또 교훈을 통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나는 양

51) 「공동번역 신약성서」, “요한”, 4:34, 대한성서공회.

52) 「공동번역 신약성서」, “요한” 4:26, 대한성서공회.

53)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태오”, 16:15, 대한성서공회.

54)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태오”, 10:32, 대한성서공회.

55)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태오” 6:6, 대한성서공회.

56)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태오” 5:17, 대한성서공회.

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⁵⁷⁾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함을 통하여 예수는 인생의 궁극적인 실패를 막고자 하였다.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잃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왔다. 더욱이 그는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해 내놓았다.

⑦ 사람들의 믿음과 소망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었다. 예수는 세례자 요한의 복음에다 다음과 같은 명령을 덧붙였다. “복음을 믿으라.” 즉 이것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었다. 예수의 관심은 그가 다시 올 때에 필히 세상에서 믿음을 찾겠다는 것에 있었다.

⑧ 인종적인 차별을 깨뜨리는 것이었다. 그는 대낮에 사마리아 여인과 더불어 말을 하였다. 그의 이야기들 가운데 사마리아인을 모범적인 이웃으로 말하였다. 그는 또한 로마의 백부장의 종도 고쳐 주었다. 그는 죽음을 통하여 생명에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자기에게 속한 “다른 양들”에 대해서, “전체”에 누룩이 퍼지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하였다.

⑨ 어두움의 일들을 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예수는 악령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모든 종류의 고통을 풀어 주고, 그의 제자들에게 마귀를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

2) 教育內容

예수는 하느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전력투구하였다. 자신을 선포함으로써 사명을 수행하지 않았고 다만 하느님 나라를 설교하고 실현하기 위해 온 자신을 드러낸다. “당신은 누구십니까?”라는 세례자 요한의 질문⁵⁸⁾에 대해 ...자기 신원을 밝히기보다는 과업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펴려는 주관심을 드러낸다. 하느님나라의 선

57) 「공동번역 신약성서」, “요한” 10:10, 대한성서공회.

58)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태오”, 11:35, 대한성서공회.

포와 실현이 예수의 주된 사명이었다.

사실 예수의 설교는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오"⁵⁹⁾로 요약된다. 그러나 예수는 이것만을 가르치지 않았다. 예수는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또 하느님의 나라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피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의 체계로 형성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하느님 나라라는 대전제를 고찰하고 그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 대해, 하느님 나라와 "나"의 관계에 대해, 또 "나와 너"라는 공동체에 대해 차례로 고찰할 것이다.

(1)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그 자체를 인식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는 비유들로 그려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나라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공의로운 선물로서 주어진다.

"하느님 나라"라는 개념은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예수의 하느님 나라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정의로써 공정한 정치를 펼칠 통치자가 나타나 구현하게 될 나라 즉 희망의 총체적 실현으로서의 하느님 나라를 기대해 왔다. 그 나라는 한마디로 하느님이 친히 백성을 다스리시는 주권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해 과정에서 많이 변질되었다. 예수는 그들 속에서 참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

하느님 나라는 세 가지의 면모를 지닌다.

- ① 하느님의 계시로서, 사람과 친숙한, 인간을 자녀로 삼는 하느님 아با를 보여준다.
- ② 인간의 구원으로서, 하느님은 자비로운 권능으로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준다.
- ③ 예수의 인격 자체로서, 하느님 나라는 예수 자신을 통해 이미 와

59)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르코」, 1:15, 대한성서공회.

있고 화해를 일으킨다.

이러한 하느님 나라는 초월적, 신비적, 초자연적, 인격적, 현재적, 사회적, 개별적, 미래적이다. 결국 하느님 나라는 예수의 신원을 드러내고 있다. 하느님은 예수 안에서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결정적으로 내어 놓았는데 이 자기 내어줌이 곧 하느님 나라이다.

하느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와 있다. 하느님 나라는 예수가 가르친 모든 것의 원인이다. 존재도 하느님 나라에 비추어 해석되고, 행위도 하느님 나라에 비추어 당위성을 가진다. 우리는 그 완성을 위해 일해야하는 하느님 나라의 일꾼인 것이다.

(2) 인간은 누구인가?

분명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유한한 존재다. 그래서 스스로는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는 하느님이 버리지 않았음을 가르친다. 인간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다.⁶⁰⁾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우리를 뻔히 쳐다보고 있다. 하느님에 의해서만 인간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 하느님이 인간을 부르고 있다. 초대하고 있다.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는 이 사실을 인간에게 알리고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하느님은 인간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늘나라를 제시한다.

(3) 하느님 나라는 나에게 무엇인가?

하느님 나라는 절대적이다. 즉 예수가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하느님 나라에의 초대는 “예” 혹은 “아니오” 라고 분명하고 절대적인 응답을 매순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 자신의 존재 전체가 걸린 문제다. 분명 인간은 유한하고 하느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요구가 나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인 것은 아니다. 인간은 갈림길 앞에서 결단을 요구받고 있다. 미래의 일이 아니다. 자신의

60)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태오”, 10:31; “루가”, 12:7, 대한성서공회.

전존재가 걸린 생사결단의 선택이기에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현재형의 사건이다. 오늘 올바른 결단을 하지 못한다면 내일은 오지도 않을 그러한 상황이다. 그 긴박성을 예수는 가르치고 있다.

(4) 우리는 누구인가?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과 나 하나만의 세상이 아니다. 모든 인간, 모든 세상 즉 모든 피조물과 하느님이 이루어내는 나라이다. 구원 혹은 하느님 나라는 공동체성을 지닌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 역시 공동체로서 묶여져 있다. 이것은 인간의 선택 사항이 아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다.

예수의 적대자들이 예수로 인해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공로로서 하느님의 보상을 얻게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을 예수가 통째로 붕괴시켰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나라는 거저 주어진다. 그렇기에 개인에게가 아니라 세상 모두에게 주어진다. 그렇기에 세상 어느 사람도 귀천이 있을 수 없다. 하느님 앞에 한 형제요 동반자인 것이다. 나 혼자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가르침은 제자들이나 동조자들에게 가두어져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해야만 했었다. 그들은 하느님으로 인해 더 잘난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할 수 없는 형제애를 얻은 것이다. 예수의 공동체가 부활 사건 이후 더욱 커져가면서 세상에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우리"는 주어져 있는 인간의 존재 방식이며, 서로의 다른 모습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5) 무엇해야 하는가?

하느님은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내던진다. 당신 자신을 내어준다. 예수 자신이 이미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이 세상에 왔고, 또 자신을 더욱 낮추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인간에게 남김없이 내어준다. 이 십자가 사건은 분명 유일회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예수는 이 사건이 일회적인 사건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현재의 전례 안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이제 인간 스스로가 자기 내어줌, 자기 비움을 실행하기를 원한다.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유이기도 했다. 그는 가르치고, 몸소 보여주고, 우리들도 하기를 원한다.

인간은 자기존재를 유지하려고 한다. 자기 비움은 그에 역행하는 것이다. 예수는 이 역행이 가능한 것임을 가르쳐 준다. 하느님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함으로써 이다. 아버지가 공의로운 분, 거짓이 없는 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분임을 가르친다. 그리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망설여진다. 그래서 결단을 처절한 자기싸움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이 결단은 분명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듯 하기에 고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것 역시도 이겨내야만 한다고 예수는 가르친다. 미래의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을 참아 받음 그 자체가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 없이는 하느님 나라는 있을 수 없다.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려 두지 않는다. 인간은 외로운 존재가 아니다. 예수는 하느님의 그 사랑과 보살핌을 가르친다. 이것은 인간을 온실에서 키우지 않고 고난 속에서 두면서 함께 그 고난을 받아내는 사랑과 보살핌이다. 예수는 직접 이것을 보여준다.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는 하느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 고마움을 잊지 말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인간적 욕심을 버림으로써 주어지는 은혜에 만족할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자신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이어나가 세상에 가르치고 또 우리 자신들도 직접 그것을 실천하기를 가르친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⁶¹⁾ 오직 아버지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하느님 나라만을 향해 매진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예수는 성급하지 않았다. 제자들의 물이해도, 군중들의 우매함도, 적대자의 비난과 공격도 그를 다급하게 행동하도록 몰아세우지 못했다. 그는 이상할 정도로 참고

61) 「공동번역 신약성서」, “루가”, 10:37, 대한성서공회.

기다렸다.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수확할 수는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며, 하느님의 교육방법이기도 하다. 그는 결단을 요구하고서는 기다린다.

3) 다양한 教育方法

교육은 늘 학생들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교육한다는 것은 바로 삶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킨다는 의미이다. 예수는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신의 교훈을 통하여 제자들을 교육하였다. 또 제자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교훈의 활용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내용보다는 일상적 삶의 주변에 잠재된 생활 속의 교훈을 통해 피교육자들과 효과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개인차를 고려한 열린교육과 창의성교육을 지향하는 현 교육현장에 적용되어야겠다. 어떻게 보면 교훈을 통한 가르침이 구태의연해 보이지만 그를 통한 심오한 뜻을 생각하게 하고 발견하게 하는 것은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본다.

예수의 교육방법은 너무나 다양하다. 그의 교육방법 전체를 논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의 현대 교육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육방법을 거의 대부분 사용했다. 예수의 교육방법이 이처럼 다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틀에 짜여진 교육방법으로 피교육자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피교육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교육방법을 선택하여 교육시키는, 그의 독창성 때문이었다. 예수의 다양한 교육방법을 한 번쯤 검토하고 연구해야할 필요성을 느껴본다.

예수가 자신의 교육에서 사용한 방법을 크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현대의 교육학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육의 도입부분에서 사용한 방법과 교육을 전개해 나가면서 사용한 방법, 그리고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사용한 방법이 그것이다.

(1) 교육의 도입부분에서 활용한 방법

예수는 도입부를 중요시했다. 학습에서 도입이란 교사가 교육하고자 하는 주제를 향해 관심을 끌어가는 것, 즉 학생들의 마음을 그 날의 학습 주제로 불러내는 것을 말한다.⁶²⁾ 예수가 도입부에서 활용한 방법은 흥미유발과 간결·명확한 언어의 사용, 이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① 흥미유발

교육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교육자의 관심과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피교육자의 흥미를 일깨우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피교육자가 그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런 학습은 피교육자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없다. 그러나, 인기를 끌려는 방식의 주의집중, 예를 들면 교사가 기묘한 행동을 한다거나 책상을 친다거나 하는 등으로 학생들의 주의를 끄는 것은 별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주의를 학생들의 흥미가 결여되어 있어 학습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⁶³⁾ 참다운 주의 집중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들, 즉 학생들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들과 연결되는 관심, 취미, 활동, 경험들과 관련되는 것일 때 발생한다.⁶⁴⁾ 그렇기에 흥미유발에는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에 대한 파악이 선행된다.

예수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제대로 파악하여 그들의 흥미를 일깨워 줌으로써 주의를 집중시켜 전달하였다.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했고, 그들의 흥미와 연결된 주의를 끌었다. 즉, 그는 시선을 통해서,⁶⁵⁾ 상이한 접촉점을 통해서,⁶⁶⁾ 질문을 통해서,⁶⁷⁾ 초대의 말을 통해서,⁶⁸⁾ 이름을 불러줌으로써,⁶⁹⁾ 자신만의

62) J. M. 프라이스, 김철호 역(1988), 「위대한 교사 예수」, 침례출판사, p.84.

63) 같은 책, p.85.

64) 같은 책, p.85.

65)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태오”, 4:18, 대한성서공회.

66) 「공동번역 신약성서」, “요한”, 4:7-9, 대한성서공회.

67)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태오”, 16:13, 대한성서공회.

68)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르꼬”, 1:17, 대한성서공회.

69) 「공동번역 신약성서」, “요한”, 1:42, 대한성서공회.

독창적인 언어들을 통해서⁷⁰⁾ 주의를 집중시켰다.⁷¹⁾

이 중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⁷²⁾는 예수가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킨 가장 두드러진 예이다.⁷³⁾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도저히 가르침이 성립될 수 없을 정도의 나쁜 교육여건을 갖고 있었다. 당시 예수의 상황은 상당히 멀리 걷고 난 후에 피곤과 목마름, 배고픔에 지친 상태였고, 여자도 물을 길러왔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 또, 예수는 죄를 지은 일이 없었으나 여인은 형편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한 쪽은 남자요, 한편은 여자였으며, 예수는 유대인이요,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다.⁷⁴⁾ 이런 모든 상황은 교육이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는 물이라는 둘 사이의 아무런 적대감이 없는 주제를 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여인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그 외에도 예수는 기적과 같은 표징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집중시켰다. 피교육자의 흥미를 유발시키는데 있어서 예수에게는 결코 정형화된 방법이 없었다. 예수는 피교육자가 처해있는 상황에 비추어 실생활 중에서 가장 관심과 흥미를 가질 만한 것을 매개로 이용하여 그들을 자신의 가르침으로 초대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는 먼저 그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나눔을 가졌다.

② 피교육자의 수준에 맞는 간결·명확한, 구체적 언어사용

가장 훌륭한 교육은 학생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이다. 아무리 훌륭한 내용도 학생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교육은 실패한 것이다. 교육은 교사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보다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하고, 간결·명확한 언어, 구체적인 언어를 통해 전달될 때 효과

70)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태오”, 4:3; “루가”, 18:17,31; 22:10; “요한”, 3:3,5 등, 대한성서공회.

71) 베르너 C. 그랜드르, 김국환 역(1992), 「복음주의 기독교 교육론」, 기독교문서선교회, pp.57-58.

72) 「공동번역 신약성서」, “요한”, 4:1-42, 대한성서공회

73) 사마리아 여인의 예를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의 교육을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74) J.M.프라이스, 김철호 역(1988), 앞의 책, p.87.

를 거둘 수 있다.⁷⁵⁾ 그러기 위해선 학생들의 지식, 정신구조, 반응정도의 수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수의 가르침은 대부분 결코 어렵지 않았다.⁷⁶⁾ 그의 가르침은 일반대중이 이해하고 놀랄 수 있을 정도로 쉬웠다⁷⁷⁾. 예수가 가르친 주제는 ‘하느님 나라’라는 대부분 추상적이고 영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추상적인 진리를 추상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비유와 같은 예(例)를 통해서 알기 쉽게 설명했다.⁷⁸⁾ 씨뿌리는 자와 씨앗, 밀과 가라지, 겨자씨의 비유, 누룩, 숨겨진 보물 등의 비유는 당시의 농경사회 문화권에서 생활한 청중들에게 친숙하고 쉬운 소재들이었다.

또 예수는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통해 가르침을 전달했다. 프라이스는 예수의 이러한 교육방법을 설명하면서 “예수의 형식을 갖춘, 산상수훈과 같은 교훈적인 강화는 짧고 간결하며 격언 같은 문장들을 사용했다는 점이 눈에 띄이는 것이며 주의를 끌고, 진리를 내포하며 기억에 오래 남는 문장들”⁷⁹⁾임을 강조했다. 예수가 자신의 가르침 중에서 사용한 속담이나 격언, 짧은 비유 등은 긴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거나 상상력에 호소하며 상징적으로 전달되어 그의 가르침을 더욱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⁸⁰⁾

(2) 교육의 전개부분에서 활용한 방법

전개부분은 도입부분에서 일으켜진 학생들의 흥미와 주의를 유지시키고 가르침

75) 베르너 C. 그랜도르, 김국환 역(1992), 앞의 책, pp.102-103.

76) 물론 예수의 가르침 중에서도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내용도 있었다. 예를 들면, “생명의 빵에 관한 예수의 말씀”(요한 6:22-59)을 듣고 난 후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요한 6:60)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예수의 말은 대중이 알아듣기 쉬운 내용이었다.

77)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태오”, 7:28-29, 대한성서공회.

78) W.C.Graendorf, 김국환 역(1992), 앞의 책, p.58.

79) J.M. 프라이스, 김철호 역(1988), 앞의 책, p.75.

80) P. Perkins(1990), Jesus as Teacher, Cambridge Univ. Press: New York, pp.42-51;

예수가 사용한 속담이나 격언이 들어 있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신약성서」, “마태오”, 5:3-9; 9:16-17; 6:21; 22:24; 7:1.17; “마르코”, 4:24; “루가”, 5:36b-38; “요한”. 4:37; 13:12 등.

을 직접적으로 전개하는 부분이다.⁸¹⁾ 이 부분에서 예수가 사용한 방법은 다양하다. 여기서는 예수가 사용한 방법 중 비유법(이야기법), 강화법, 질문법, 대화법, 유희법, 대상물의 활용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비유법(이야기법)

예수의 교육방법 중의 가장 특색 있는 점 중의 하나는 예수가 자신이 가르침을 활용할 때 비유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비유는 문학의 특별한 한 형태로서 낮은 사실들의 예를 들어서 낮은 진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⁸²⁾ 예수는 자신이 갖고 있던 ‘하느님 나라’라는 추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쉬운 비유의 내용을 갖고서 피교육자에게 접근하였던 것이다.

비유는 가르치는 방법 중에서 비 형식적이고 자유롭게 전달될 수 있으며 피교육자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쉽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수는 비유를 자주 사용했다. 호온은 <표1>과 같이 예수가 가르침 중에 사용한 비유를 총 61개로 찾아내고, 이중 16개를 사물들에서 취했고, 7개를 식물들에게서 취했으며, 4개를 동물들에게서, 그리고 나머지 34개를 사람들 가운데서 취했음을 밝히고 있다.⁸³⁾

<표1>예수의 비유들

분 류	수 량	백 분 율
사 물 들	16	26.0
식 물 들	7	11.5
동 물 들	4	7.0
사 람 들	34	56.5
합 계	61	100.0

자료 : 기독교문서선교회, 예수님의 교육방법론, 1999. p.111.

81) J.M.프라이스, 김철호 역(1988), 앞의 책, p.88.

82) 베르너 C.그랜도르, 김국환 역(1992), 앞의 책, p.85.

83) H. Home, 박영호 역(1999), 앞의 책, pp.111-116.

비유를 교육방법으로 사용한 예는 예수뿐만 아니라 이전의 예언자들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수의 비유는 이전의 예언자들의 그것과는 달리 독창적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을 갖는다. 신약성서 학자인 J. Jeremias는 예수의 비유와 이전 예언자들의 비유를 3가지 점에서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⁸⁴⁾ 예수의 비유는 첫째 그전에 비해 범례가 전혀 새로운 것이며, 둘째 주로 생활에서 선택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셋째 매우 명백하고 형태면에서 탁월하다는 것이다.

예수의 교육방법으로 비유를 사용할 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했다. Graendorf는 비유를 분석해 본 결과 예수가 4가지의 목적에서 비유를 사용했음을 밝혀 내었다.⁸⁵⁾ 또한, 성서는 예수가 비유를 사용한 이유를 하느님 백성에게 하느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과 교만한 자에게는 하느님의 뜻을 가리우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⁸⁶⁾

이처럼 비유는 예수가 자신의 교육을 원만히 진행시키고 진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한 교육방법이었다. 그래서 성서 저자는 심지어 예수가 비유가 아니면 가르치지 않았다고 까지 표현하고 있다.⁸⁷⁾

② 강화(講話)법

강화법은 오늘날의 교수방법 중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중 하나이다. 강화법은 주로 대규모 그룹을 가르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예수의 경우도 많은 군중을 가르칠 때 주로 사용하였다.

호온은 예수의 강화를 주제별로 구분하여, 제자들에게만 가르친 강화와 제자와 기타 사람들에게 가르친 강화, 그리고 군중들에게만 가르친 강화 등으로 모두 60여 개를 찾아내었다.⁸⁸⁾ 호온이 찾아낸 것을 살펴보면 예수는 주로 군중을 가르치기 위

84) 김태원(1992), 「기독교교육사」, 육일문화사, p.36.

85) 첫째,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사용된 것(루가 8,4-8), 둘째, 천상적 자리나 원리원칙을 위해 사용된 것(루가 10,30-35), 셋째,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것(루가 15장), 넷째, 삶에 대한 진리의 적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루가 6,47-49) 이다; cf W.C.Graendorf, 김국환 역(1992), 앞의 책, p.60.

86)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태오”, 13:10-17; “마르꼬”, 4:10-12, 대한성서공회.

87)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태오”, 13:34; “마르꼬”, 4:34, 대한성서공회.

한 방법으로 강화를 사용했지만, 필요한 경우엔 12제자와 같은 소규모 집단들을 가르칠 때에도 사용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예수는 강화법을 군중이라는 고정된 대상만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가 강화를 했던 장소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비형식적 교육의 특징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는 어디서든지 자신과 학생이 있으면 사용했다.

예수의 강화는 내용이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짧은 강화가 많다. 짧은 강화와 함께 다소 내용이 긴 것도 있는데, 마태오 5-7장의 산상설교와 마태오 24-25장의 불행선언, 요한 14-16장의 고별담화문이 대표적 강화로 꼽히는 것들이다.⁸⁹⁾

예수의 교육방법 중 하나로 사용된 강화법은 오늘날 교육의 강의법과 비슷하지만, 오늘날의 강의법이 단순히 지적인 부분에 대한 호소라고 한다면 예수의 강화법은 지성, 감성, 의지, 영성의 전인격에 호소하는 교육방법이었다.⁹⁰⁾ 예수의 비유도 상당 부분 강화 안에 포함되어 있다.

③ 질문법

예수가 사용한 또 하나의 교수방법은 질문법이었다. 질문법은 강화법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육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수의 질문법은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역할을 갖고 있다. 그러나 깨달음을 유발시키는 것만이 질문법을 사용한 온전한 의도는 아니었다. 예수는 더 풍부한 목적을 위해 질문법을 사용하였다.

호운은 4복음서를 통해 예수가 던진 질문을 약 100여 개 이상 찾아내었는데,⁹¹⁾ 이를 살펴보면 예수가 사용한 질문들이 각성만을 얻거나 혹은 단순한 정보나 해답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88) H. Horne, 박영호 역(1999), 앞의 책, pp.93-97.

89) 이 세 가지 강화 중에서 특별히 산상설교의 경우는 강화법 뿐만 아니라 강화의 중간 중간에 질문법과 대상물 이용법 등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Cf. W.C.Graendorf, 앞의 책, p.61.

90) J.M.프라이스, 김철호 역(1988), 앞의 책, pp.113-114.

91) H. Horne, 박영호 역(1999), 앞의 책, pp.71-73.

Graendorf의 경우엔 예수가 사용한 질문의 다양한 목적을 열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⁹²⁾ 그러나, 그의 연구에 충분한 가치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예수가 질문을 사용한 목적이 훨씬 다양하게 사용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Graendorf가 주장한 것 외에도 양심을 일깨우는 질문,⁹³⁾ 믿음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⁹⁴⁾ 상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질문,⁹⁵⁾ 어떤 이로 하여금 모순에 빠지게 하려는 질문⁹⁶⁾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질문들이 무수히 나온다.

이상과 같이 예수는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방식으로 어떠한 얽매임도 없이 자유롭게 질문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결코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예수는 자신의 교육을 더 깊이 있게 하고 학생들을 진리로 더 가까이 접근시키기 위해 질문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④ 토론법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교육방법 중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이 토론법(대화법)이다. 토론법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협조적으로 일하여 진리를 찾는 공동협력과정으로, 이 때 교사는 지시자가 아니라 안내자가 되고, 피교육자들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인격적인 교육방식이다.⁹⁷⁾

Washington Gladden은 훌륭한 대화자가 되기 위한 특성을 정신과 훌륭한 마음의 두 가지로 요약하고, 선천적인 능력과 지성, 훈련이 훌륭한 정신에 내포되고, 훌륭한

92) ① 과신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질문들(마태오 16,13); ② 제자들이 흐트러진 생각을 명확하게 바로잡기 위한 질문들(마태오 10,3); ③ 감정을 표현하는 질문들(마태오 12,13); ④ 구체적인 실례를 들면서 시작하는 질문들(루가 11,5-6); ⑤ 진리를 강조하기 위한 질문들(마태오 16,26); ⑥ 구체적인 생활 속에 진리를 적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질문들(루가 10,36); ⑦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들(마태오 15,34); ⑧ 교사와 제자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질문들(루가 8,45); ⑨ 교사들과 제자와의 관계를 꾸짖기 위한 질문들(마태오 21,25-27); ⑩ 수사학적 질문들(마태오 6,25); ⑪ 확신을 가져다주는 질문들(마르코 2,25); ⑫ 평가하고 확인해 보기 위한 질문들(요한 21,15-17); Cf. W.C.Graendorf, 앞의 책, pp.58-59.

93)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태오”, 23:17, 대한성서공회.

94)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르코”, 8:29, 대한성서공회.

95)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르코”, 10:2-3, 대한성서공회.

96)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르코”, 3:4, 대한성서공회.

97) J.M.프라이스, 김철호 역(1988), 앞의 책, pp.119-120.

륭한 기질, 관대한 성품, 솔직성, 동정심, 열정, 진지함, 겸손이 훌륭한 마음에 내포됨을 전제한 후, 훌륭한 대화자는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일뿐 아니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⁹⁸⁾

예수가 가르침 중에 대화 혹은 토론을 자주 사용했는데 특별히 개인이나 소그룹의 제자를 가르칠 때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예수가 사용한 토론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니고데모와의 대화⁹⁹⁾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¹⁰⁰⁾ 그리고 부자 청년과의 대화¹⁰¹⁾등이다. 이 세 가지 대화에서 보여지는 공통점은 Gladden이 지적한 것처럼 예수가 대화를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수는 피교육자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할 때 대답이나 질문을 통해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만을 제시해 주었다.¹⁰²⁾ 그는 결코 강요하거나 이끌어 주는 지도자가 아니라 피교육자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했고, 피교육자의 의견을 충실히 들어주는 참다운 대화자의 모습을 보였다. Gladden이 말한 훌륭한 대화자의 자격은 예수의 삶과 가르침 속에서 충만히 구현되고 있다.

⑤ 유화법

유화(apperception)란 “이미 기존의 사실이나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의 지식을 이끌어내는 인식의 한 방법”¹⁰³⁾이다. J.F.Herbart(1776-1841)가 교육에 도입함

98) H. Horne, 박영호 역(1999), 앞의 책, pp.64-65.

99) 「공동번역 신약성서」, “요한”, 3:1-21, 대한성서공회.

100) 「공동번역 신약성서」, “요한”, 4:1-42, 대한성서공회.

101)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르꼬”, 10:17-22, 대한성서공회.

102) 예를 들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대화가 진행되는 도중 여인은 예수가 원하는 학습목표, 즉 자신이 메시아이고 영생의 물임을 깨닫게 해주려는 의도에 반해서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예수는 여인의 이러한 모습에 화를 내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었다(요한 4,10.15.21). 결국 여인은 올바른 진리에 도달하게 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요한 4,29.30); 참조: J.M.프라이스, 앞의 책, p. 90-91.

103) H. Horne, 박영호 역(1999), 앞의 책, p.142.

으로써 교육학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된 유화법은 교육학적 의미로 새로이 학습할 내용을 기존의 친숙한 사고와 연결시킴으로써 교육시키는 것을 말한다.

유화법의 용어와 정의를 교육학에 처음 도입한 사람은 Herbart이지만, 예수는 Herbart보다 십 수세기 앞서 유화법을 자신의 교육방법의 하나로 사용하였다. 예수는 결코 제자들에게 어떤 진리에 대해서 막연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예수는 피교육자들이 사고 작용과 능력을 이해하고 그들의 능력에 맞게 점차 친숙해지도록 교육하였다. 예수가 그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친숙한 내용들을 담은 비유와 예증, 시청각 교육자료들을 사용한 것은 바로 이러한 원리에서이다.¹⁰⁴⁾

예수가 사용한 유화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생수가 생명의 물로 연결되었다.¹⁰⁵⁾
- 안식일에 곡식을 잘라먹고 일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에서 다윗이 행했던 일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행하는 것과 제자들이 행한 일을 연결시켰다.¹⁰⁶⁾
- 나자렛 회당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한 기반으로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들려주었다.¹⁰⁷⁾

예수는 유화법의 자료를 결코 어려운데서 구하지 않았다. 그는 군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일들과 구체적으로 연결하여 자신의 추상적이며 고귀한 진리를 설명했다.¹⁰⁸⁾ 그가 사용한 비유나 예증 등은 바로 그러한 유화법을 사용한 내용들이다.

⑥ 대상물의 활용방법

104) W.C.Graendorf, 김국환 역(1992), 앞의 책, pp.73-74.

105) 「공동번역 신약성서」, “요한”, 3:1-42, 대한성서공회.

106)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태”, 12:1-8; “마르코”, 2:23-28; “루가”, 6:1-5, 대한성서공회.

107) 「공동번역 신약성서」, “루가”, 4:16-30, 대한성서공회.

108) 호은은 복음서에서 유화법과 관련된 내용 34가지를 찾아냈었다; H. Horne, 박영호 역 (1999), 앞의 책, pp.156-157.

어떤 사실에 대해 듣기만 했을 때, 그 교육적 효과는 보고 들은 것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이는 ‘百聞 而 不如一見’이라는 속담처럼 시각적 효과의 우수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눈은 귀에 비해 학생의 마음에 접근하는데 있어 훨씬 더 효과적인 통로로 어떤 학자는 우리 지식의 80%이상이 시각적 방법으로 얻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¹⁰⁹⁾ 또, Edward Leigh Pell은 “우리는 사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 일반 원리를 말한다. 많은 교사들이 연필과 종이를 써서 두 세 번 그려 넣어 1-2분 만에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입으로 30분 동안 설명하려 든다”¹¹⁰⁾면서 대상물 활용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표2> 예수가 사용한 대상물활용교육의 예

목 적	활용대상물	관련성서구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살핌	새, 꽃, 풀 같은 자연물	마태 6,25-31
신앙의 결핍	열매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마태 21,18-22
겸손에 대한 가르침	어린아이	마태 18,1-6
정부에 대한 책임	동전	마르12,13-17
봉헌에 대한 올바른 동기	과부	마르 12,41-44
하느님 나라의 임박함	추수할 들판	요한 4,35-39
아버지와 자신과 그리고 제자들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	요한 15,1-6
예수의 신성	기적들	요한 5,36

자료 : 기독교문서선교회, 복음주의 기독교교육론, 1992, p.63.

예수는 바로 이러한 대상물 활용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 중 필요한 경우에 사용했다. 그는 이 방식을 주로 추상적인 진리를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데 사용했다. 예수가 사용한 대상물

109) 천정웅(1980), 「예수의 교육방법」, p.22.

110) J.M.프라이스, 김철호 역(1988), 앞의 책, p.98.

활용교육의 몇 가지 예는 위의 <표2>과 같다.¹¹¹⁾

예수의 대상물 활용교육은 그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추상적인 진리를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이끌어 주었다.

(3) 교육의 마무리에서 활용한 방법

교육의 마지막 절차는 끝맺음 혹은 적용의 단계이다. 교육의 마무리는 이전에 실행되었던 가르침의 전체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완전한 교육은 단순히 가르침을 전해 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전해 받은 가르침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변화됨으로써 종결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적 방법은 실천에의 적용이다.

예수는 교육의 마무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교육의 마무리에서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¹¹²⁾

우선 예수에게 있어서 교육의 마무리는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즉, 앎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교육이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끝에 명시적으로¹¹³⁾ 혹은 암시적으로¹¹⁴⁾ 배운 것을 행하도록 자주 권고했다. 또, 예수는 자신이 특별한 노력으로 교육시킨 제자들을 파견하여 그들이 배운 바를 실천하도록 했다.¹¹⁵⁾ 예수의 제자 교육은 가르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직접 실천해 봄으로써 생활 속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111) W.C.Graendorf, 김국환 역(1992), 앞의 책, p.63.

112) 예수가 교육의 마무리에서 활용한 방법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이 배운 바를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방법과, 다른 한 가지는 스스로의 모범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을 따라 하도록 본보기가 되었던 방법이다. 이 두 방법 중 전자는 변혁적 리더로서의 예수 부분 중에서 솔선수범의 원리에서 다루겠고, 후자는 예수의 사제 관계 특징 부분 중에서 사제관계의 진행 부분에서 다뤘기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113)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태오”, 25:13; “마르코”, 9:50; “루가”, 6:36; 10:37; “요한”, 8:11; 1:14-15 등, 대한성서공회.

114)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태오”, 17:24; 18:3-5:22; 19:12; 21:22; “마르코”, 3:35; 10:44; “루가”, 12:40 등, 대한성서공회.

115) 「공동번역 신약성서」, “루가”, 9:1-6; 10:1-2, 대한성서공회.

또 한가지는 예수가 제자들이 배운 바를 실천으로 옮기도록 이끌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또한 ‘가르친 바를 스스로 삶을 통해 보여준 모범’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그의 제자들이 자신과 같이 부를 수 있도록 본보기를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모범과 제자들의 발을 씻겨 준 모범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장 깊은 감명을 전해 주는 살아 있는 교육을 행했다.¹¹⁶⁾

이런 살아 있는 교육은 예수 삶의 일부분에만 보여진 것이 아니었다. 그의 총체적인 삶은 바로 제자들이 따라야 할 본보기와 모범의 삶이었다. 그래서 Perkins는 예수는 스스로 행한 것만을 요구했다고 말하고 있다.¹¹⁷⁾

4) 教育의 효과

이미 다 알 듯이 어떤 교육이든 그 즉시로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다. 예수의 교육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단 예수의 가르침은 예수 살아 생전에도 별 효과가 없었다. 제자들은 제멋대로였고, 군중은 알아듣지를 못했다. 십자가의 사건 전후 제자들은 오히려 배신하고 도망갔다. 그러나 이 때문에 그의 교육이 실패다 아니다를 판정 받을 수는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다. 그들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었다.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를 못했다. 그들은 성령강림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교육의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배운 것들을 세상 속에 선포하며, 가르쳤던 것이다. 그들의 활동은 자신들의 공동체, 교회를 형성하며 계속 이어졌고 그 안에서 예수의 가르침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어진다. 예수의 가르침, 그것은 예수 자신에 대한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다.

116) J.A.Grassi(1978), *Jesus as Teacher-A New Testament Guide to Learning "the Way"*, St. Mary's College Press: Winona, Minesota, pp.49-53.

117) P. Perkins(1990), *op. cit.*, p.54.

3. 예수의 리더십

1) 變革的 리더십

리더십이란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집단활동을 유지·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와 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리더십이 과학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부터이다. 리더십 이론과 연구는 특성적 접근(1940년대 말까지), 행동적 접근(1940년대 말 - 1960년대 말), 상황적응적 접근(1960년대 말 - 1980년대 초), 변혁적 접근(1980년대 초 이후)으로 이어지고 있다. 변혁적 리더십은 때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유사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를 하위요소로 포함하기도 한다.¹¹⁸⁾ 두 개념 사이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변혁적 리더십이 카리스마적 리더십보다 더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있다.¹¹⁹⁾

이제 학교 행정가들은 급격한 변화와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 개념의 새로운 리더십(new leadership)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구조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수업 지도성(instructional leadership)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변혁적 리더십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¹²⁰⁾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와 부하가 상호간에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신념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고 조직목표에 대한 높은 헌신성을 가지게 한다. 이와 같이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을 구성

118) Bryman A. (1992). Charisma and leadership in organizations. London: Sage; 노종희 (2001), "변혁적 리더십과 인간경영," 「논문집」, 한국교육행정학회, p.24에서 재인용

119) Yuki, G. A. (1989). Leadership in organizations. 2d ed. N. J.: Prentice-Hall; 노종희 (2001), "변혁적 리더십과 인간경영," 「논문집」, 한국교육행정학회, p.24에서 재인용

120) Leithwood, k. (1994). "Leadership for school restructuri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30 (November); 노종희 (2001), "변혁적 리더십과 인간경영," 「논문집」, 한국교육행정학회, p.23에서 재인용

하는 요소인 구조, 인간, 과업, 기술 중에서 인간요소와 가장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내의 인간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다.

(1) Burns의 변혁적 리더십 이론

변혁적 리더십(transforming leadership)은 구성원의 성장욕구(growth needs)를 자극하고 동기화 시킴으로써 구성원의 태도와 신념을 변화시켜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을 이끌어 내는 지도자의 특성을 의미¹²¹⁾한다.

변혁적 리더십은 교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의 대응개념으로 Burns에 의해서 명명되었다.¹²²⁾ 교환적 리더십은 부하가 리더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것과 같이 리더와 부하사이의 '주고 받음'을 수반한다.

반면에,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와 부하가 상호간에 동기를 부여하고 목적의식을 높여 주는 과정을 수반한다. Burns의 변혁적 리더십 이론의 주요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혁적 리더는 공포, 탐욕, 질투, 증오와 같은 천박한 정서가 아니라 자유, 정의, 평등, 평화, 인도주의와 같은 보다 높은 이상과 도덕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부하들의 의식을 일깨운다.

둘째,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계층상의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직위의 고하에 관계없이 발휘될 수 있다. 이것은 부하에게는 물론이고 동료와 상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셋째,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들의 기본적 욕구만을 제한적으로 가진 개인이 아니라 상위수준의 욕구까지를 가진 전인(全人)으로 대우하며 이들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Maslow의 욕구계층 중 존중의 욕구 및 자아실현의 욕구의 개

121) 이종재(2001), "21세기의 학교 경영과 학교장의 리더십," 「논문집」, 한국교육행정학회, p.20.

122) Burns, J. M.(1978), Leadership. N. Y.: Harper & Row; 노종희(2001), "변혁적 리더십과 인간경영," 「논문집」, 한국교육행정학회, p.24에서 재인용

님이 활용되고 있다.

넷째, 변혁적 리더십은 일련의 뚜렷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다. 리더십은 리더가 지속적으로 부하들의 동기적 반응을 일으키고 또 그들의 행동을 수정하는 상호관련성의 흐름이다.

다섯째, 변혁적 리더십은 개인간의 영향과정인 미시적 수준과 사회체제를 변화시키고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권력을 동원하는 과정인 거시적 수준을 모두 포함한다.

(2) Bass의 변혁적 리더십 이론

Bass¹²³⁾는 Burns의 이론을 보다 발전시키면서 변혁적 리더십¹²⁴⁾을 다음과 같이 부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설정된 성과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보다 잘 인지하도록 부하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과정이다.

둘째, 조직을 위해서 부하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뛰어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다.

셋째, 부하들의 상위수준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이들 욕구를 활력화 시키는 과정이다.

Bass는 카리스마를 변혁적 리더의 중요한 요소로 보면서도 그 자체만으로 변혁적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부하들은 리더에 대해서 신뢰를 느끼고 충성심과 존경심을 가지며, 그들의 과업동기는 기대이상으로 크게 유발된다.

한편, 변혁적 리더십에 관해서 Bass의 이론은 Burns의 그것과 여러 측면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도 있다.

123) Bass, B. M.(1985), Leadership and 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s. N. Y.: Free Press; 노종희(2001), "변혁적 리더십과 인간경영," 「논문집」, 한국교육행정학회, p.25에서 재인용

124) transforming leadership 대신에 transformational leadership을 사용함,

첫째, Burns는 변혁적 리더를, 부하들의 긍정적인 도덕적 가치와 상위수준의 욕구를 강조하는 훌륭한 리더로만 국한시킨다. 반면에 Bass는 변혁적 리더를, 부하들의 동기를 자극하고 헌신도를 증대시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Burns는 도덕적 리더십(moral leadership)을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요소로 보고 있는 반면에 Bass는 도덕적 선과 악의 변인들을 제거하고 단순히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 리더십(change leadership)만으로 보고 있다.

셋째, Burns는 교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연속선상위의 서로 다른 지점에 위치하는 양극개념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Bass는 이 두 가지 리더십을 분리된 차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Bass의 견해에 따르면, 대부분의 리더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두 가지 리더십 유형을 사용할 수 있다.

인간개발과 관련된 변혁적 리더십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원리를 인간존중의 원리, 변화선도의 원리, 솔선수범의 원리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¹²⁵⁾



2) 變革的 리더로서의 예수

앞의 변혁적 리더십 이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야말로 참다운 리더로서 자기 교육의 바탕이 되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교육에 있어서 신인으로-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볼 때-하느님에 대해 원천을 찾을 수 있는 교육자였기 때문에 변혁적 리더십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수의 리더십은 총체적 위기로까지 일컬어지는 오늘의 우리 학교교육 현실을 타개하고 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어 매우 적절한 리더십으로 간주되는 변혁적 리더십과 접목시켜 살펴볼 수가 있다. 현대 교육에서 예수는 리더로서 요구되는 자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리더의 인격적인 부분과 부하에 대한 사랑의 정도, 교수(教授)에 대한 능력 등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예

125) 노종희(2001), “변혁적 리더십과 인간경영,” 「논문집」, 한국교육행정학회, pp.28-29.

수의 리더로서의 특징은 그의 삶의 모습에 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그 모델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기 전부터 삶을 통해 이미 실천하고 있었다.¹²⁶⁾

예수의 교육은 당시의 교사인 랍비들의 교육과는 달랐다. 당시의 랍비들은 학생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린 후 학생들이 모였을 때 교육을 시작했으나 예수는 학생들을 먼저 찾아 나섰다. 랍비들의 경우는 안식일에 회당이나 성전이라는 고정적인 장소에서 가르친 반면 예수는 회당이나 성전뿐만 아니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걸어가면서, 길가에서, 바닷가에서, 광야에서, 들판에서, 산에서, 집안에서, 우물가에서 등 어디에서든지 항상 가르쳤다.¹²⁷⁾ 또, 랍비들은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형식화된 신조나 율법서, 전통적인 내용을 통해 가르쳤으나 예수는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 가르쳤다.¹²⁸⁾ 이외에도 예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리더십의 독특한 특징적인 요소들이 수없이 많다.

당대의 교사들과 구별되는, 예수의 리더십 특징들은 변혁적 리더십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원리를 제시한 노종회의 실천원리와 매우 유사하다.¹²⁹⁾ 예수의 리더십 특징들 중에서 주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간 존중의 원리

인간존중은 예수가 제자들을 성숙한 전문 존재로 수용하는 것과 관련을 가진다. 예수는 집단의 우두머리라는 권위주의적 인식보다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확고부동한 권위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제자들의 협력과 열정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¹³⁰⁾ 특징으로 개인 존중과 인격존중의 교육이 있다.

① 개인 존중의 교육

126) 천정웅(1980), 「예수님의 교육론」, 「교사의 벗」 163호, 한국기독교 문서원.

127) 천정웅, 「예수님의 교육방법」, 「교사의 벗」 164호(1980.2), p.21.

128) 천정웅, 「예수님의 교육방법⑤」, 「교사의 벗」 168호(1980.6), p.17.

129) 노종희(2001), 앞의 책, pp.28-29.

130) 같은 책, p.28.

Lewis Sherrill은 예수의 교육 대상을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¹³¹⁾ 첫 번째 집단은 당시의 부패한 종교적 고위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로, 이들은 예수를 비판적으로 보려 했던 이들이다. 예수는 이들에게 주로 논쟁적 성격을 띤 변증법적 언어를 사용했다. 둘째 집단은 예수를 쫓아다니던 대중들로 예수는 이들에게 기적과 비유를 통해 가르쳤다. 셋째 집단은 예수와 가장 가깝게 있었던 예수의 제자들로 예수는 이들을 늘 자신의 곁에 두고 심오한 부분까지 가르쳤다.

복음서는 예수가 군중을 상대로 가르친 장면과 12제자와 같은 소집단을 상대로 가르친 장면, 그리고 개개인을 상대로 하여 가르친 장면을 모두 전해주고 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우선, 예수는 대중을 상대로 가르쳤음을 볼 수 있다. 예수는 가파르나움, 갈릴레아, 예루살렘과 유다, 남쪽 끝인 이두매아부터 서쪽 끝인 시돈과 띠로 등지에서 모여든 군중들에 의해 자주 둘러 쌓이곤 했다.¹³²⁾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¹³³⁾과 ‘사천 명을 먹이신 기적’¹³⁴⁾은 그 군중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짐작하게 해 주는 사건이다. 예수는 자신의 공생활 중 많은 시간을 군중과 함께 보내며 가르쳤음을 다음에서 알 수 있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지자 사람들은 갖가지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도 모두 고쳐주셨다. 그러자 갈릴래아와 데카폴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온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¹³⁵⁾

그러나 많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독사의 족속들이! 닥쳐올 그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

131) 김태원(1992), 앞의 책, p.34.

132) 헤르만 호은, 박영호 역(1999), 앞의 책, p.172.

133)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태오”, 14:13-21, 대한성서공회.

134)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태오”, 4:24-25; 3:7-12; 14:14; “마르꼬”, 12:12; “루가”, 6:17-19 등, 대한성서공회.

135)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태오”, 4:24-25, 대한성서공회.

거를 행실로써 보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하는 말은 아예 할 생각도 마라. 사실 하느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은 나보다 훌륭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그분은 손에 키클 드시고 타작 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¹³⁶⁾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예수를 잡으려 하였으나 군중이 무서워서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¹³⁷⁾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많은 제자들과 함께 유다 각 지방과 예루살렘과 해안 지방인 띠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는 더러운 악령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도 고쳐 주셨다. 이렇게 예수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와 누구든지 다 낫는 것을 보고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예수를 만지려고 하였다.¹³⁸⁾

그런데 예수는 다른 한편으로는 군중을 가르치는 중간 중간에 개인들을 상대로 하여 자주 가르치기도 했다. 특별히 공생활 후반부에 들어서서는 군중보다도 오히려 소집단이나 개개인을 중심으로 가르쳤다. 복음서는 군중보다는 오히려 개인을 상대로 한 예수의 교육에 대해서 더 자주 전해주고 있는데, 호온은 예수는 복음서를 연구하여 예수가 교육시킨 개인을 약 60여명 정도로 찾아내었다.¹³⁹⁾ 이를 근거로 호온

136)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태오”, 3:7-12, 대한성서공회.

137)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르코” 12:12, 대한성서공회.

138) 「공동번역 신약성서」, “루가” 6:17-19, 대한성서공회.

139)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가파르나움에 살던 관원의 아들, 더러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베드로의 장모, 문둥병자, 중풍병자, 베짜타 연못의 38년된 병자, 손이 오그라든자, 로마 백부장의 하인, 나인 과부의 아들, 마리아와 마르타, 막달라 마리아, 요안나, 수산나, 야이로의 딸 등.

은 예수가 자신의 사명을 개인과 더불어 끝마쳤음을 강조하면서, 개인들을 신뢰했고 그들과 더불어 가장 성공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성시켰음을 주장하였다.¹⁴⁰⁾

복음서를 통해 볼 때, 호온의 주장처럼 예수의 첫 번째 관심 대상은 군중보다는 개인들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는 군중과 자주 어울리고 그들의 요구를 해결해 주었지만 그들에게는 '신비'를 깨우쳐 주지 않고 특별한 소집단(특히 제자단) 혹은 개인들에게 핵심적인 진리까지 알려주었다.¹⁴¹⁾ 복음서는 이에 대한 결과로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군중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그의 가르침을 받은 개인의 변화에 대해서는 자주 전해 주고 있다. 예수는 개인과 만나고 가르치면서 그들의 장점을 이끌어 냈고, 그들의 인성을 교육시켰던 것이다.¹⁴²⁾ 이러한 모습은 예수가 교육에 있어 개인을 얼마나 존중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예수는 모든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교육시키지 않았다. 예수는 학습자들의 능력과 필요, 태도, 동기 등을 먼저 파악하고 그것과 관련시켜 그 대상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을 시켰다.¹⁴³⁾ 예리한 통찰력으로 인간 본성을 이해한 예수는 개인에게 먼저 다가와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인적인 대화[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리를 가르쳤다. 예수는 결코 그 대상을 획일적으로 대하거나 그들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가장 인정을 받지 못하는 병자들, 죄인들, 세리들까지도 최대한 존중하고 그들에게 맞는 가르침을 주었다.¹⁴⁴⁾

예수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변화시키려 시도하지 않았다. 개인을 존중한 교육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킴으로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나중에 더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초를 놓았던 것이다.

②인격존중의 교육

140) 헤르만 호온, 박영호 역(1999), 앞의 책, p.176.

141) 「공동번역 신약성서」, “루가”, 8:9-10, 대한성서공회.

142) 천정웅, 「예수님의 교육방법⑦」, 『교사의 벗』 170호(1980.9), p.19.

143) J.M.프라이스, 김철호 역(1988), 앞의 책, p.21.

144) PHEME. PERKINS(1990), *op. cit.*, pp.30-37.

예수의 리더십 특징의 또 하나인 ‘인격 존중의 교육’은 개인 존중의 교육과 맥을 같이 한다. 예수는 어린 나이부터 율법을 외우게 했던 율법학자들의 교육방식과는 달리 결코 주입식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예수는 학생들이 가진 호기심과 정서, 그들의 흥미와 필요에 먼저 관심을 가졌고 그것을 이해한 후 그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여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 스스로 변화하도록 가르쳤다.¹⁴⁵⁾

인격 교육에는 그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선행한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력을 가졌던 예수는 그들의 인격의 고귀함을 존중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 나섰다. 예수 시대의 바리사이나 율법학자 등은 세리나 죄인들을 업신여겨 그들을 하대하고 그들과 말하는 것조차 꺼렸다. 또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고, 여성은 남성의 종으로 취급했으며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닌 인격으로 취급하지 않았다.¹⁴⁶⁾ 그러나, 예수는 이들을 먼저 찾아 나서서 그들 한 명 한 명을 최대한 존중심을 갖고 인격적으로 대했다. 그는 간음하다 들킨 여인을 비난 하길 거절하였고,¹⁴⁷⁾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리를 가르쳤으며,¹⁴⁸⁾ 어린이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했다.¹⁴⁹⁾

또한,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는 늘 학습자의 인격적 결단의 몫으로 남겨두었다.¹⁵⁰⁾ 그는 단지 학습자의 능력과 수준과 필요에 맞도록 진리를 가르칠 뿐이었다.

예수의 인격 존중 교육의 가장 적당한 예는 12사도에 대한 교육에서 발견할 수 있다. “나를 따라 오너라”¹⁵¹⁾라는 매우 짧고 간결한 말씀에 인격적인 결단으로 다가간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활동하면서 그의 인격에

145) 천정웅, 「예수님의 교육방법⑤」, p.16-17.

146) J.M.프라이스, 김철호 역(1988), 앞의 책, p.126.

147) 「공동번역 신약성서」, “요한”, 8:1-11, 대한성서공회.

148) 「공동번역 신약성서」, “요한”, 4:1-42, 대한성서공회.

149)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태오”, 18:5, 대한성서공회.

150) 「신약성서」, “마태오”, 11:15; “마르코”, 4:9,43; “마르코”, 4:9,23; “루가”, 14:35, 대한성서공회.

151)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태오”, 4:19, 대한성서공회.

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는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하여 결코 하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을 -자신을 배반할 유다를 포함하여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대하기까지 했다.¹⁵²⁾ 제자들에 대한 예수의 인격존중 교육은 십자가상 죽음이라는 큰 시련 앞에서 실패로 돌아가는 듯 했으나 결국에 있어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힘으로 남아 있었다.

피교육자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여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는 3년의 공생활 동안 그렇게도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변화될 수 있는 그들의 인격을 온전히 신뢰했고, 그 신뢰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2) 변화선도의 원리

변화선도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부단히 새로움을 추구하도록 자극하는 것과 관련을 가진다. 예수는 독특한 리더십의 원리를 채택하여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를 감행하도록 촉구하며,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에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다.

먼저 교육장소에 있어서 예수는 당시 랍비들이나 회랍의 철인들처럼 회당이나 공식학원에서 제자들을 불러들여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몸소 생활현장의 한 복판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고 가르쳤다.¹⁵³⁾ 예수에게는 교육장소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가정이나 회당, 산이나 바닷가, 우물가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자신과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르쳤다.

리더십에 있어서는 어떠한 한 두 가지 방식을 선호한 것이 아니라 자유스럽게 상황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방식을 사용했다. 어떤 때는 실물을 이용한 방법을

152) 「공동번역 신약성서」, “요한”, 13:1-20, 대한성서공회.

153) 케니스 O.갬글·워렌 S.벤슨, 유재덕 역(1992), 「기독교 교육사」, 기독교 문서 선교회, pp.78-105.

사용하였고,¹⁵⁴⁾ 또 어떤 때는 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으며,¹⁵⁵⁾ 상황에 따라 비유법,¹⁵⁶⁾ 강화법,¹⁵⁷⁾ 토론법,¹⁵⁸⁾ 질문법,¹⁵⁹⁾ 예화,¹⁶⁰⁾를 사용하였고 본보기¹⁶¹⁾를 사용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식탁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고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그는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너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제 발만은 결코 씻지 못하십니다.”하고 사양하자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도 없게 된다.” 하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주님,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십시오.”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목욕을 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그만이다. 너희는 것처럼 깨끗하다. 그러나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 넘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으므로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나서 겹옷을 입고 다시 식탁에 돌아와 앉으신 다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왜 지금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는지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스승 또는 주라고 부른다. 그것은 사실이니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다. 그런데 스승이며 주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¹⁶²⁾

154)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태오”, 22:15-22, 대한성서공회.

155)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태오”, 21:12-16, 대한성서공회.

156)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르꼬”, 4:1-34, 대한성서공회.

157)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태오”, 5-7장; 24장, 대한성서공회.

158) 「공동번역 신약성서」, “요한”, 3:1-20, 대한성서공회.

159)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르꼬”, 10:36; “루가” 10:36, 대한성서공회.

160) 「공동번역 신약성서」, “요한”, 9:39-41, 대한성서공회.

161) 「공동번역 신약성서」, “요한”, 13:1-20, 대한성서공회.

162) 「공동번역 신약성서」, “요한”, 13:4-15, 대한성서공회.

당시 종들은 주인이 외출에서 돌아오면 그들의 발에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발을 씻기는 풍습이 있었는데 예수는 스승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사랑의 종'으로서의 본을 보인다.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진실된 그의 행동이었을 뿐 아니라 제자들도 변화되어 마땅히 이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교육적 의도에서 연출된 것이기도 하였다.

교육과정에 있어서 그는 오늘날의 학교처럼 교과서와 교육자료들이 정해져 있는 명시적 교육과정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아무런 계획없이 가르치지 않았다. 그의 공생활 3년에 걸친 12제자 교육을 통해 볼 때 예수는 무계획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행동하면서 제자들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한 잠재적 교육과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¹⁶³⁾

이처럼 예수는 교육장소, 교육방법, 교육과정 등에 있어 어떤 고정화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예수의 자유스러움은 그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스승들의 경우는 진리의 일부분을 전해 받아 그것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는 모든 진리를 이해하고 자신 안에 진리를 품고 있는 '진리자체'¹⁶⁴⁾ 이기에 그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자유로웠던 것이다.¹⁶⁵⁾

예수는 자신의 비형식적 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다.

(3) 술선수법의 원리

술선수법은 예수가 제자들의 모범이 되는 것과 관련을 가진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가 추구한 교육은 전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이었다. 여기서 전인적인

163) 김태원(1992), 앞의 책, p.36.

164) 「공동번역 신약성서」, “요한”, 14:6, 대한성서공회.

165) 김보록(1990), 「참교육자이신 예수」, 「성서와 함께」 170호, p.23.

변화란 단순히 지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측면에서는 지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평가하는 측면에서는 정적으로, 그리고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는데 있어서는 의지적인 부분이 강조됨으로써 ‘지·정·의’의 전인격이 한 인간을 통해서 반영되는”¹⁶⁶⁾ 것을 말한다. 즉, 참다운 교육은 지적, 정서적으로 변화된 내용이 의지의 실천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되는 교육을 말한다.

율법교사는 짐짓 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겨 반쯤 죽여놓고 갔다. 마침 한 사제가 바로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또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옆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다. 다음 날 자기 주머니에서 돈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하며 부탁하고 떠났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¹⁶⁷⁾

예수의 교육은 바로 이러한 교육이었다. 예수는 제자들을 가르쳤고, 제자들 중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에게는 그들이 배운 대로 행동할 것을 강조했다.¹⁶⁸⁾ 예수는 율법학자에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지적이고 정적인 깨달음을 준 후 그에게 깨달은 대로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또

166) 베르너 C. 그랜도르, 김국환 역(1992), 앞의 책, p.108.

167) 「공동번역 신약성서」, “루가”, 10:29-37, 대한성서공회.

168) 천정웅, 「예수님의 교육방법⑤」, p.17.

영생을 얻으려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따를 것을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시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여라.’한 계명들을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시고 대견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나서 나를 따라 오너라.” 그러나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떠나갔다.¹⁶⁹⁾

또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와 대화를 나눈 후 그의 가르침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직접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돌아가 사람들에게 “나의 지난 일을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봅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하고 알렸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모여들었다.¹⁷⁰⁾

예수는 12제자들과 72인의 제자들을 자기 곁에 두고 교육시킨 후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실천해 보도록 그들을 파견하였고, 그들은 배운 바를 그대로 실천했다.

169) 「공동번역 신약성서」, “마르코”, 10:17-22, 대한성서공회.

170) 「공동번역 신약성서」, “요한”, 4:28-30, 대한성서공회.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든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자를 고쳐주라고 보내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다. “길을 떠날 때 아무 것도 지니지 마라. 지팡이나 식량자루나 빵이나 돈은 물론, 여벌 내의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곳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 동네를 떠나라.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표시로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열두 제자는 길을 떠나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이르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쳐주었다.171)

그 뒤 주께서 달리 일흔 두 제자를 뽑아 앞으로 찾아가실 여러 마을과 고장으로 미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이렇게 당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172)

그러나 무엇보다도 솔선수범의 가장 완전한 예(例)는 바로 예수 자신이었다. 예수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이 가르친 바를 직접 실천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묵묵히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제자들의 역할모델이 되기도 했다.

예수는 결코 가르침으로 교육을 끝내지 않았다. 그는 가르침이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삶이 변화할 때 그것을 온전한 교육으로 보았다. 제자들이 그들의 배운 바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권고 말씀 때문이기도 했지만, 말한 바를 그대로 살았던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말없는 가르침의 영향이기도 했다.

171) 「공동번역 신약성서」, “루가”, 9:1-6, 대한성서공회.

172) 「공동번역 신약성서」, “루가”, 10:1-2, 대한성서공회.

IV. 結論

본 연구는 교육학에서 제안된 리더십 이론들을 신약성서의 4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기록들에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이 작업을 통하여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서 교육적으로 유관한 사태들을 풍부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해석의 작업에서 몇 가지 통찰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예수의 삶에 반영되어 있는 교육 사태는 학교 연구에 편중되어 있는 현 교육학의 풍토에서는 낯설게 느껴지는 교육의 탈제도적(脫制度的) 측면을 잘 부각시키고 있다. 예수의 교육적 삶은 적어도 학교라고 하는 제도화된 교육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 그는 제도화된 교육의 출현 이전에 이미 교육적 삶을 살고 있었으며, 건물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산과 들을 이동하면서 교육의 삶을 실천하였다.

또한 그는 국가의 개입이나 직업적 연관이 없는 가운데서도 교육 본연의 삶에 매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의 삶이 교육학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탐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범주에 포섭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教育史 영역에서는 거의 도외시되어왔다.¹⁷³⁾

그러나 예수의 삶이 교육학 이론의 관심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구체적 결과는 적어도 교육학의 관심이 제도화된 교육에 국한된다고 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선 새로운 교육 연구의 관점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세계와 교육학 이론의 구성 맥락이 학교나 제도적 사태에만 국한된다고 하는 현 교육학의 암묵적 패러다임의 한 반증 사례로서 예수의 삶은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이란 제도의 맥락에서 그 실체가 분명히 포착되는 존재가 아니라 제

173) H. Horne, 박영호 역(1980), 앞의 책, pp.105-124.

도의 출현 이전부터 인간의 탄생과 죽음이라는 생물학적 과정 사이에 자연스럽게 관여해 온 인류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는 제도화된 교육기관이나 근대적 의미의 의무교육이 출현하기 이전부터 교육의 기능을 감지하고 이를 이용한 발전을 지속시켜 왔다. 제도로서 학교의 본격적인 출현은 국가가 출현된 이후, 이전부터 존재하던 교육 기능을 제도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제도가 교육을 대신할 수는 없고, 오히려 제도는 그 본질 활동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 물론 근대적 의미의 학교 제도가 반드시 교육의 구현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증거들도 있다.¹⁷⁴⁾ 따라서 교육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는 교육 이론의 관심 영역이 제도로서 학교에만 제한된다고 하는 것은 교육을 이해하는 바람직한 관점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학의 연구 대상인 교육 현상은 현재 교육학의 관심 영역인 학교 안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가정과 놀이터, 감옥과 법정 등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크게 확장된 인간사(人間事) 곳곳에 편만(遍滿)해 있다.¹⁷⁵⁾ 예수의 삶에 대한 연구는 현재 교육학의 이론적 관심사가 학교라는 제도를 넘어선 보다 보편적 맥락에서 교육 본질 규명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예수의 삶은 교육 소재의 성격과 그 다양성에 대한 시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의 교육학에서 교육의 소재에 관한 논의인 교과에 대한 논의는 학문 본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주로 학교에서 무엇을 교과로 채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논의의 중심이 된다.¹⁷⁶⁾ 그러나

174) S. Bowles, & H. Gintis, 이규환·강순원 편역(1984), 「자본주의 사회와 교육」, 창작과 비평사, pp.15-54.

175) 장상호(1990). "교육의 정체혼미와 교육학의 과제." 「교육이론」, 5(1), pp.21-64.

최성욱(1988). 「학교와 교육의 관계를 통하여 본 교육사회학의 학문적 성격 고찰」, 서울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76) 이홍우(1994). "교육내용으로서의 지식." 김종서 외. 「교육과정」.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학교에서 학문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주장이지만, 제도 중심의 교육관을 탈피하면, 학문이 교육의 소재로 우월성이 있다는 입장은 더 이상 견지하기 어렵다.

학문이 교육의 훌륭한 소재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학문의 성격에 의해 교육 소재의 성격을 제한하는 것은 학문 본위의 환원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이론적 활동을 통한 학문이 인간사에 있어서 고귀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교육의 소재를 모두 학문화하여 이해하는 것은 학문계의 자기 중심적 결론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의 소재에는 예술, 도덕, 체육 등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재들은 고유한 체험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문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

이와 함께 지적되어야 할 것은 현재 학교 현장에 지배적인 교과관인 인식론적 정초주의가 최근의 인식론적 반성에 의해 도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¹⁷⁷⁾ 인식론적 정초주의는 제반 학문에서 생성된 결과물들을 최종의 고정된 지식으로 간주하고 이를 교과서에 담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안이한 통념에 근거한다. 이러한 지식은 정답과 오답의 한계가 분명하게 고정되어 있고, 그 지식이 발생한 시행착오의 맥락은 학습자에게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최근의 과학 철학에서 제기된 과학 지식의 성격에 대한 반성과 그 발전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더 이상 견지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¹⁷⁸⁾

예수의 삶을 교육적으로 파악할 때 먼저 그 가르침의 소재가 매우 생소함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는 이 가르침의 소재를 언표화하거나 이론화하는데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가 가르친 천국은 체험되어야

177) 장상호(1996). "교육적 관계의 인식론적 의의." 「교육원리연구」, 1(1). 교육원리연구회.
엄태동(1998). 「교육적 인식론 연구: 키에르케고르와 플라니의 교화적 방법에 대한 교육학적 고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78) A. Charlmes, 신일철·신중섭 역(1985), 「현대의 과학철학」. 서광사, pp.124-137.

할 것,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내면의 총체적 변화에 의해 획득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예수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언표를 단순히 모방하거나 암기, 효과만을 노린 수단적 개입 등을 경계하고 있다.

예수의 삶에서 보여준 교육의 사태는 언어사용의 한계를 매우 잘 드러내고 있으며, 언표의 동조보다는 체험의 변화라고 하는 보다 근본적인 교육의 과제에 대하여 우리의 관심을 옮겨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예수의 삶이 교육이론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채택한 소재 또한 교육의 한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이제까지 학문계 중심의 관점에서는 잘 포착되지 않았던 교육의 소재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소재의 성격은 오히려 학문의 성격 규명의 반성을 요청하고 있는 최근의 인식론적 경향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예수의 삶의 교육적 해석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으로 리더십의 발견을 들 수 있다. 기존의 교육학이 가지고 있는 인간과 교육에 대한 수단화 패러다임은 반성의 여지가 많다. 학교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표방하는 교육학이 채택한 자연과학적 패러다임은 인간과 교육이라는, 자연과학적 현상과는 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교육 현상을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연과학적 인과론에 입각한 교육 현상의 연구는 변인들 간의 통제나 조작에 의해 보다 나은 교육의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 또한 이들이 말하는 교육의 결과는 단적으로 학업 성취나 세속적 성공, 국가 발전과 같은 교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재적인 것들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성립되는 교육의 고유한 측면을 포착하는데 근본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인간은 자율적 존재로서 자발적 동기에 의해 추구되는 가치 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 세계는 다른 외적 보상이 제거된 가운데서도 몰두되고 추구될

수 있는 세계이다. 어떤 경우에는 모든 세속적 가치를 희생하면서도 헌신하고 추구하는 것이 이러한 세계의 특징이다. 예수의 삶은 이러한 내재적 가치의 차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한낱 미치광이의 삶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교육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계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내재적 가치의 세계들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현실 자체도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수단적 인과관계에 의해 파악하는 자연과학적 패러다임이나 유물론적 관점은 교육학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적절한 패러다임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내재적 가치의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추구 주체가 자율적인 존재임이 가정되어야 한다. 행동주의나 결정론적 입장은 인간의 능동성을 부정하면서 인간 행동을 기술의 발달을 통해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또는 가르치는자의 본위로 학습자를 이해할 때 어떤 처치나 기술이 학습자의 변화를 보장할 것으로 가정한다.

예수의 삶은 가르침이나 배움 모두가 가치에 대한 자발적 헌신과 주체적 결단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의 사태에 관여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타율적으로 규정되는 인간형이 아니라 내재적 가치를 좇아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능동적 인간형이다.

교육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주체로서의 인간 사이에 성립하는 것이며 가치의 감식을 통한 주체의 자발적 헌신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다. 예수의 삶은 인간의 교육이 통제에 의한 주조(鑄造)에 비유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필요와 자발적 선택이라고 하는 인격적 과정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예수는 자신의 세계에 대한 보존의 방법으로 교육을 채택하였다고 하는 점은 교육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예수는 자신이 직접 저술을

하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예수가 과연 실존 인물이었는지조차 의심받고 있다.¹⁷⁹⁾ 그러나 예수는 자신에 대한 책이나 객관적 사료를 남김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알아보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을 남김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보존시키고 있다.

즉 예수는 바로 교육의 과정을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세계를 더욱 생생히 보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부 신학자들은 성서의 본문을 엄밀히 비평함으로써 예수에 대한 이미지를 얻으려고 하다 실패하여 그를 역사적 예수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였지만 예수는 자신이 문헌에 의해 증명되기보다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보다 더 분명히 증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오늘날 예수는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데 이는 예수의 존재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학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들에 의해서이다. 그의 객관적인 역사적 증거는 상실되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는 지금 역사상 어떤 인물보다도 많은 살아 있는 지지자와 증인을 확보하고 있다. 바로 이점은 예수가 교육의 세계와 그 역량을 감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교육학이 예수의 이해에 고유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제까지 예수의 연구에 있어서 매우 큰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 예수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역사적 예수를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¹⁸⁰⁾ 학자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서의 기술들을 분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예수는 역사적으로 조작되거나 창작된 인물인가? 특별히 그가 보여준 기적들과 부활의 문제에 대하여 그것의 사실성이 계속적으로 의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오히려 교육적 관점은 이러한 난점에 대하여 한 가지 해결점을 시

179) J. Meier, 최갑종 편역(1994), 「최근의 예수 연구」, 기독교문서선교회, pp.23-51.

180) S. Kistemaker, 신성종·최갑종 역(1985), 「현대의 복음서 연구」, 엠마오, pp.131-142.

사하고 있다. 예수의 실존에 대한 증명은 객관적 역사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자증(自證)과 타증(他證)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하여 오늘날도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예수의 제자들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예수가 말한 것들과 일들에 대한 증거는 역사적 증거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좇아 그가 말하는 세계에 들어가 본 사람들에게 의해 오늘날도 열정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교육적 방법이 바로 예수의 말들의 진리성을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예수도 역사적 기록보다는 이러한 증명 방식에 더욱 의존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교육학이 현재 기독교와 예수에 대한 정초주의적(定礎主義的) 이해가 봉착한 한계를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논증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유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의 삶을 교육적 관점에서 해석한 본 연구가 이상과 같은 교육학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아울러서 무분별한 교육본위의 환원주의로 인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본 해석의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예수에 대한 균형된 이해를 위하여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학문적 이해는 특정 관점에 포착된 실재만을 규명하기 때문에 이를 예수에 대한 유일하게 타당한 이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수의 삶은 지금까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 맥락에서 주로 이해되어 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예수의 삶이 교육적으로 매우 유관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예수의 이해는 많은 난점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예수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종교적 맥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도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해 볼 때 예수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해석은 하나의 비유적 성격을 띤다. 예수의 삶 자체는 매우 그 구조상 교육과 유

관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교육학이 포섭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며, 형이상학적인 가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교육학적 유추를 위한 좋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하여 교육의 이론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소간 이를 교육적 비유로 간주하는 입장을 유지함에 의해서이다. 예수의 삶은 교육의 세계와 매우 유사하지만 다분히 이성적인 이해를 넘어선다. 거기에는 신(神)과 내세(來世), 영생(永生), 성령(聖靈)과 같은 우리의 일반적 경험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또 다른 주제들이 이미 개입되어 있다. 따라서 예수의 가르침을 그 맥락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맥락을 넘어선 새로운 맥락을 요청한다. 그러나 그의 삶은 어느 누구보다도 교육적 비유로서 매우 큰 교육적 시사를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희안(1991), 「기독교 교육사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 권찬대(1980), 「4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구본만(1999), 「예수그리스도의 교육론에 근거한 전인 교육과정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김경수(1993), 「리더십 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경숙(1990), 「교사의 리더십, 학업성취도, 학급풍토가 교육효과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보록(1990), 「참 교육자이신 예수」, 『성서와 함께』 170호.
- 김상원(1981), 「교육방법론」, 교육출판사.
- 김용남(1990),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과학사.
- 김찬배(1984),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교육사상」, 장로회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 김태원(1992), 「기독교교육사」, 육일문화사.
- 김택윤(1984), 「교육행정가의 창조적 리더십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노종희(2001), “변혁적 리더십과 인간경영,” 「논문집」, 한국교육행정학회.
- 박연호(1985), 「교사와 인간관계론」, 법문사.
- 박연호(1988), 「인간관계론」, 박영사.
- 박정혁(1997), 「예수의 제자교육 사상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 박태식(2000), 「나자렛 예수」, 바오로딸.
- 박호준(1986), 「예수님의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 고신대학 대학원.
- 송덕준(1976), 「예수의 교육방법」,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신약성서(1979), 「공동번역성서」, 대한성서공회.
- 신용섭 외(1994), 「리더십」, 학지사.
- 엄태동(1998), 「교육적 인식론 연구 : 키에르케고르와 플라니의 교화적 방법에 대한 교육학적 고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유기현(1975), 「인간관계론」, 무역경영사.
- 이동수·강연중·황종렬·원종욱 역(1996), 「가톨릭 주석 신약 성서」, 성요셉출판사.
- 이정찬(1987),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문음사.
- 이종재(2001), “21세기의 학교 경영과 학교장의 리더십,” 「논문집」, 한국 교육행정학회.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2001),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과학사.
- 이홍우(1994), 「교육내용으로서의 지식」, 김종서 외, 「교육과정」, 한국 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장미애(1993), 「현대 기독교 교육방법론과 예수의 교육방법론 비교 연구」, M. Div 과정.
- 장상호(1990), “교육의 정체혼미와 교육학의 과제.” 「교육이론」, 5(1).
- 장상호(1991), “교육학 탐구영역의 재개념화.” 「교육학연구」, 91-2. 서울대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 장상호(1996), “교육적 관계의 인식론적 의의” 「교육원리연구」, 1(1), 교육원리연구회.
- 정 영(1999), 「교육행정가로서 사랑의 리더십을 위한 고찰」, 건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 정우현(1977), 「교사론」, 배영사.
- 제2차 바티칸 공의회문헌(1995), 「그리스도교 교육에 관한 선언 제 5항」,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 조정기((1984), 「교육방법론과 교육공학」, 대광문화사.
- 천정웅(1980), 「예수님의 교육론」, 「교사의 벗」 163호, 한국기독교 문서원.
- 최동일(1976), 「예수의 비유에 나타난 교훈」,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최성욱(1988), 「학교와 교육의 관계를 통하여 본 교육사회학의 학문적 성격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 최진숙(1997),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형락(1982), 「천주교용어집」, 성신출판사.
- Bowles, S. & Gintis, H. 이규환·강순원 편역(1984), 「자본주의 사회와 교육」, 창작과 비평사.
- Broda, W. & Wade, N. 박익수 역(1994), 「과학사에 오점을 남긴 배신의 과학자들」, 겐지사.
- Bultmann, R. 전경연 편역(1976), “최초의 교회의 ‘케리그마’와 역사적 예수.” 「현대 역사적 예수논구」, 한신대학 출판부.
- Cremona, Carlo, 오영민 역(1997), 「그리스도의 생애」, 바오로딸.
- Chandapilla, P. 한국기독교학생회 역(1985), 「예수님의 제자훈련」,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Manz, Charles C. 이종인 역(2001), 「예수의 비즈니스 리더십」, 해냄.
- Charlmes, A. 신일철·신중섭 역(1985), 「현대의 과학철학」, 서광사.
- Drane, J. 이중수 역(1984), 「예수와 4복음서」, 두란노서원.
- 프레더릭 마이어. 성기산 역(1998), 「위대한 교사들」, 문음사.
- Heidegger, M. 전양범 역(1989), 「존재와 시간」, 시간과 공간.
- Horne, H. 박영호 역(1999), 「예수님의 교육방법론」, 기독교 문서선교회.

- Jaspers, K. 황필호 역(1980), 「소크라테스, 불타, 공자, 예수, 모하메드」
종로서적.
- 프라이스, J. M. 김철호 역(1988), 「위대한 교사 예수」, 침례출판사.
- Kistemaker, S. 신성종 · 최갑종 역(1985), 「현대의 복음서 연구」, 엠마오.
- 갠글, 케니스 O. · 벤슨, 워렌 S. 유재덕 역(1992), 「기독교 교육사」, 기독교
문서선교회.
- Jones, Laurie Beth. 김홍섭 역(2000), 「최고경영자 예수」, 송경근 · 한 · 언.
- Meier, J. 최갑종 편역(1994), 「최근의 예수 연구」, 기독교문서선교회.
- Murdock, Mike. 박장만 역(2000), 「예수의 리더십 57가지 비밀」, 오늘.
- Renan, E. 박무호 역(1986), 「예수전」, 흥성사.
- Zuck, Roy B. 송원준 역(2000),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 디모데.
- Ullich, R. 한기연 역(1958), 「교육사상사」, 한국번역도서주식회사.
- Graendorf, W. C. 김국환 역(1992), 「복음주의 기독교 교육론」, 기독교
문서선교회.
- Betti, E.(1962/1980), Die Hermeneutik als allgemeine Methode der
Geisteswissenschaften. Hermeneutics as the General
Methodology of the Geisteswissenschaften. In J. Bleicher,
Trans., & Ed. *Contemporary Hermeneutic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Dilthey, W.(1927/1976), Gesammelte Schriften. In H. P. Rickman, Ed.,
Trans., & Intro. *W. Dilthey: Selected Writ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rster, R. (1990), *The Kingdom of Jesus*. London: Ichthus media service.
- Gadamer, H.(1960/1982). *Wahrheit und Methode*. (J. C. B. Mohr, Trans.
Truth and Method New York: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 Grassi, Joseph A.(1978), *Jesus as Teacher-A New Testament Guide to
Learning "the Way"*, St. Mary's College Press: Winona, Minesota.
- Marston, P. & Forster, R.(1973). *God's Strategy in Human History*.
Minneapolis: Bethany House Publishers,
- Perkins, PHEME.(1990), *Jesus as Teacher*, Cambridge Univ. Press: New York,
Willmington, L.(1981). *Willmington's Guide to the Bible*. Illinois:
Tyndale House Publishers.
- Corey, S. M. "The Nature of Instruction," in P.C. Lange (ed),
Programmed Instruction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77).

[Abstract]

A Study on Jesus' Educational Leadership*

Hyo-sook Ko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Jin-geon Yang



Educational phenomena are supposed to be prevalent at every aspect of our life and history. It is however unfortunate for us to fail revealing them as they are mainly due to the situation that education customarily identified with schooling.

Educational studies have been made on the wrong assumption that education would be explained through such heterogeneous disciplines as philosophy, psychology, sociology, and so on.

This study i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educational aspect of Jesus' life from the newly proposed concept of education to examine its general valid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Jesus' unique educational leadership. His leadership is consistent in his life giving much educational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1.

suggestion as an educational metaphor. I examined

- 1) the educational study tendency about Jesus,
- 2) the concrete characters of Jesus' relation of teacher and student,
- 3) Jesus' various educational activities and
- 4) Jesus' educational leadership in the aspect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Jesus has his own educational philosophy as a true leader. He has important leader's personality, the love to his students and the ability to teach. Above all, Jesus' character as a leader lies in his life itself. What he teaches is life's model. He not only practiced what he had taught but also practiced what he had not taught.

In conclusion,

First, the educational situation which appears to Jesus' life shows unsystematic aspect of education.

Second, Jesus' life gives the suggestion about the character and diversity of educational material.

Third, the educational interpretation of Jesus' life gives revolutionary leadership.

Fourth, Jesus adopted education to preserve his own world.

There are abundant situations connected in education in Jesus' life and teaching. Jesus' leadership can break today's school education at a crisis and develop competitive power of education.

As well known, Jesus was one of the greatest teachers in human history. Choosing education as a way of proving his valuable world, Jesus gave us the image of man who is active, responsible for his education and spontaneously committed to the intrinsic values.